

#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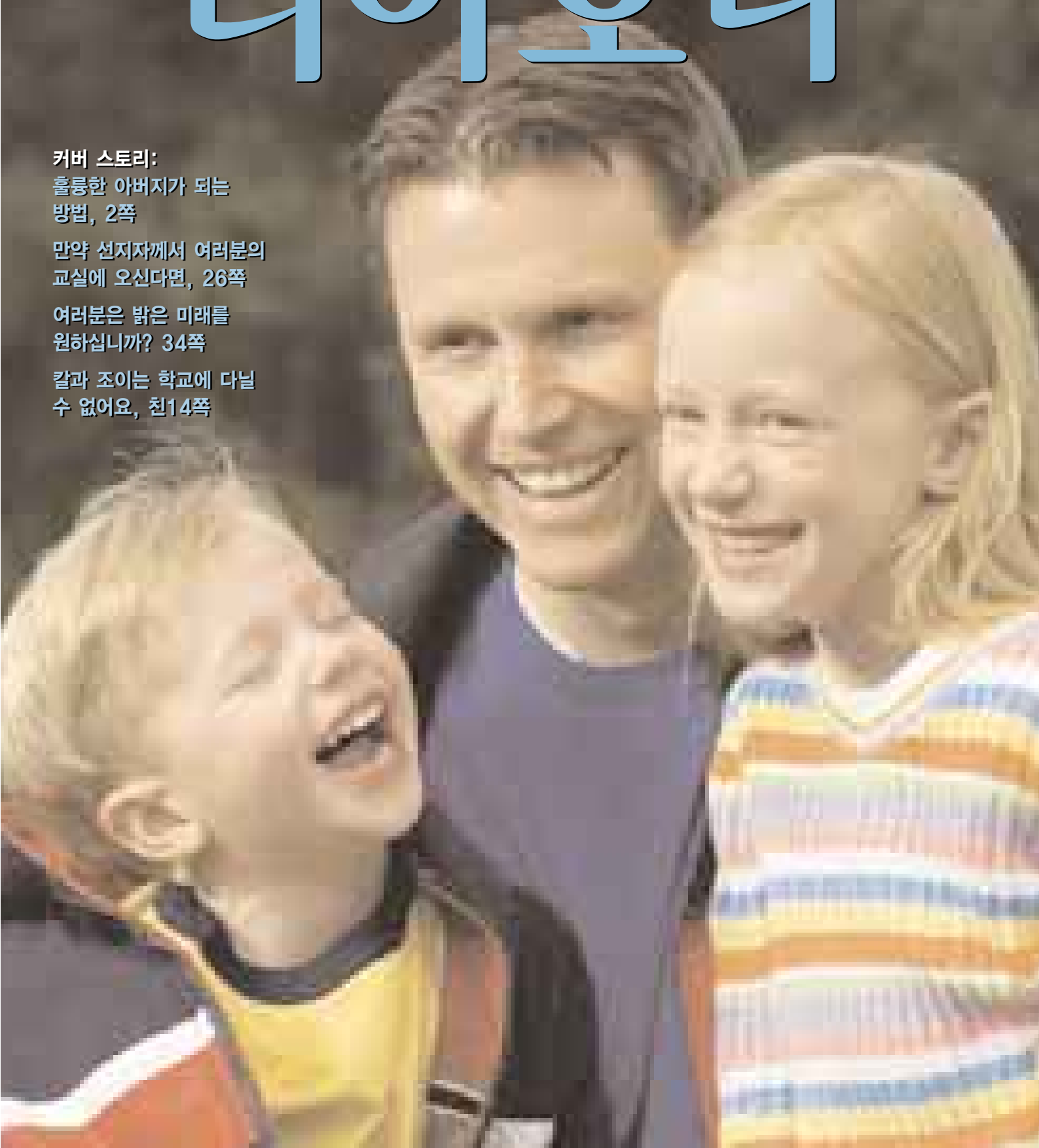
커버 스토리: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2쪽

만약 선지자께서 여러분의  
교실에 오신다면, 26쪽

여러분은 밝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34쪽

칼과 조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어요, 친14쪽





**“하** 나님께서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주는 어머니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모든 도움에 대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에 필적할 만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각 사람을 위해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특별한 보살핌의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보살피시는 아버지,” 2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미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교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린다 스티브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처드 엠 폴니, 제니퍼 로즈, 크리스티 루시, 돈 엘 셸,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니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캄벌리 웹

**선임 비서:** 요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웬, 브리트니 존스 빔,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캐슬린 하워드, 애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 486호, 제 43권, 제 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평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모든 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06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보살피시는 아버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7 다시 해 보자: *마리안느 몬슨-버튼*
- 8 잊을 수 없는 가정의 밤
- 12 가족 유산을 나눔 *엘 톰 페리 장로*
- 22 구약의 교훈들: 주님을 영원히 신뢰함 *마가렛 에스 리퍼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각 자매를 위해 봉사하고 격려함
- 26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움 *아론 엘 웨스트*
- 38 니카라과: "아름다운 열매"를 갈망하며  
*돈 엘 셸*
- 44 후기 성도의 소리  
마음의 상태  
*라켈 페드라사 브로시오*  
늦은 수확 *라이언 더블류 존스*  
독특한 숫자 조합  
*프랜시스 데이비스*
- 48 애독자 편지



**2 보살피시는 아버지**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해 보자", 7쪽:**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여 다시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하는 경건 구절을

찾는다. 글쓴이의 경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속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도하게 해 주는지에 대해 간증한다.

**"도전에 맞섬", 16쪽:** 기사에서

언급된 유혹들을 나열하고 일본의 젊은 후기 성도들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그러한 유혹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어 본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표준을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주는지에 대해 간증한다.

**"주님을 영원히 신뢰함", 22쪽:** 기사의 첫 번째 항을 활용하여 이시야 시대의 상황을 우리 시대와 비교한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금 어떻게





아버지 리하이, 글렌 에스 홀킨슨

리하이와 새라이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아들들을 라반의 손에서 건져 내신 것에 감사를 드린 후 “웃쇠편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취하여 ... 모세의 다섯 책이 들어 있음을 보셨습니까 ... [또한] 그의 조상의 족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그가 요셉의  
후손임을 아셨나니, 진실로 이 요셉은 ... 애굽으로 팔려”간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니파이전서 5:10~11, 14)

## 청소년

- 11 포스터: 인기
- 16 도전에 맞섬  
아담 시 울슨
- 20 리카르도는 알고 있다  
알 발 존슨
- 30 기적 속으로 떨어짐  
재닛 토마스
- 34 밝은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 37 아이디어 목록: 나누는  
것을 배움
- 43 알고 있습니까?  
16 도전에 맞섬



이번 호에 숨겨진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면  
좋아하는 성구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기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밝은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34쪽:  
선교사 이야기의 앞 부분 반만 말해 준  
후, 그가 귀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이 알아맞혀 보게 한다.  
이야기를 끝내고, 계속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축복  
받았는지 묻는다. 기사의 처음 두  
단락을 살펴보고 다음 말을 완성한다.  
“**옳은 일을 행하면, \_\_\_\_\_**”

“**진리는 널리 퍼질 것입니다**”, 친2쪽: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란 글귀의 각  
단어를 각각 다른 종이에 적는다. 그런

다음 종이를 섞고 자녀들에게 바른  
순서로 놓게 한다. 자녀들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게 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기사에서 그 예들을 찾는다. 디모데후서  
1장 7~8절의 성구를 집에 전시한다.

“**사랑의 유산**”, 친10쪽: 집안의  
가보를 전시하거나 집안의 전통 중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보나 전통은  
왜 중요한가?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고, 그분이 가족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진리는 널리 퍼질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음  
린다 매글비와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영감 받은 선지자
- 친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  
매리엄 조이스 그리섬
- 친10 친구가 친구에게: 사랑의 유산  
요시히코 기꾸찌
- 친12 일요일 상자: 여러분은 영원합니다  
진 맥멀린
- 친13 특별한 증인: 누구일까요?
- 친14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짐  
제니 레베카 리팅



### 친14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짐

#### 표지

사진 촬영: 웰던 시 앤더슨, 모델이 포즈를  
취함.

#### 친구들 표지

다윗과 골리앗, 샘 롤러, 복사 금지.

###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38, 44, 45쪽
가르침, 1, 26쪽	선택의지, 26쪽
가정 복음 교육, 6쪽	성경, 친14쪽
가정의 밤, 1, 8쪽	순종, 34쪽
가족, 2, 12쪽	신권, 2쪽
거룩한 인도, 22쪽, 46쪽	신뢰, 22쪽
경전 공부, 43, 친4, 친14쪽	신앙, 22쪽, 친2쪽
교육, 친14	아버지, 2쪽
기도, 20쪽	양육, 2, 7쪽
기적, 30쪽	에덴 동산, 친8쪽
다윗과 골리앗, 친4쪽	영감, 22, 47쪽
동료 집단 압력, 11, 16쪽	우선 순위, 2, 34쪽
물문경, 45쪽	유산, 12
방문 교육, 25쪽	유혹, 16쪽
배움, 26쪽	인기, 11쪽
봉사, 25쪽	지속적인 활동, 38쪽
부활, 친12쪽	지혜의 말씀, 16쪽
사도, 친13쪽	초등학교, 친4쪽
선교 사업, 30, 34, 37,	표준, 16쪽
	회개, 7쪽



# 보살피시는 아버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얼**마 전, 막내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여섯 자녀를 키워 온 한 아버지가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평소보다 자신의 책임이 더욱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사히 여기는 그의 딸 중 12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색칠한 돌맹이 하나를 그의 서랍장 위에 올려 놓은 후, 들뜬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돌맹이의 납작한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보살피 주시는 아빠가 있는 것.” 이 색칠한 돌맹이와 그 위에 적힌 숭고한 메시지는 이 아버지의 짐을 즉시, 그리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덜어 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님(1879~1959년)은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시면서 한 기사를 인용하셨는데, 그것은 한 노련한 형사 법원 판사가 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9가지 단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판사가 제안한 9가지 단어는 “Put Father back at the head of the family.” (아버지를 가장의 위치로 돌려 보낸다.)였습니다. 리차즈 회장님은 그 기사를 통해 다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유럽 국가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가정에서의 권위,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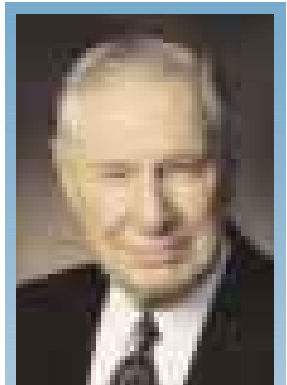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리차즈 회장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교회는 그 판사가 주장한 바를 이루기 위해, 즉 아버지를 가장의 자리에 두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들이 이 고귀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기에 합당해지도록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sup>1</sup> 교회의 주 목적은 가족과 그 구성원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좀 더 최근에 저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각각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회학자들은 범죄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의 수입, 교육, 또는 ... 인종보다 더 강력한 지표가 된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인생에 잘 대처해 나가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자라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sup>2</sup>

우리는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소홀히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란 직분보다 더 높고 위대한 영광과 책임은 없습니다. 그들 또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그들의 강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에 필적할 만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각 사람을 위해 아버지로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보살핌의 능력을 아버지  
여러분이 지닐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의 목적의 세부 묘사, 조셉 브러키, 사진 촬영: 부시스 포토그래피

## 아버지를 강화시킴

가정에서 아버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간단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아버지의 지위를 지지하고 존중하십시오. 둘째,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의 노력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성의 특성을 비하시키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 가운데는 남성의 이미지를 무너뜨림으로써 여성의 대의를 높이 내세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불안의 주요 문제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진 역할이 퇴색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나 아버지의 모습을 비하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상처가 되며, 자녀들 자신의 자기 가치와 개인적인 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것임을 모든 어머니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성이 남편을 헐뜯기보다 북돋아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여성 여러분은 여러 면에서 남성보다 뛰어나므로, 남성과 남성다움을 비하하는 것은 곧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아버지도 불안과 회의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들도 실수를 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자신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을 잘 할당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첫째 되는 우선순위가 자신의 영적, 신체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며 그 다음이 교회, 그 다음이 직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 요구됩니다.”<sup>3</sup>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 줌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훈육뿐

아니라 명령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훈육을 원하며 필요로 합니다.

자녀들은 위협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없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0년)은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들을 훈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sup>4</sup> 현명한 훈육은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 커다란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0년 10월, 신권에 관한 역사적인 말씀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값진 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것도-다시 강조해서-어느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처럼 여러분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sup>5</sup>

힝클리 회장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이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권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귀한 지위는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저는 군인이며,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더 큰 자부심, 즉 무한한 자부심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군인은 건설하기 위해 파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직 건설만 하며 결코 파괴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창조와 생명을 구체화합니다. 죽음의 집단은 강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대대는 그보다 더욱 강합니다. 제가 죽고 없을 때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의 저를 기억하지 않고 가정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매일 드리는 단순한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이** 교회에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들이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지성과 성품이라는 타고난 은사를 훨씬 넘어서 능력과 영향력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를 되풀이하는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sup>6</sup>

이 교회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통해 그들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타고난 지성과 성품보다 큰 권능과 영향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2세 이상인 모든 합당한 남성과 소년이 누리는 하나님의 신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건강한 저명한 교회 지도자이자 실업계 지도자인 한 형제는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권을 행사하면서 만일 그의 첫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의 아들에게 올바른 모범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몇 분 후, 그의 갓난아기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 그 아기는 오늘날까지 건강하고 원기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단위가 영원토록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권의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이 교회의 성실한 여성이라면 그들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의로운 영향력이 풍성하게 미치기를 바랄 것입니다.

#### 기쁨의 유산

한 인자하신 어머니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놀라운 경험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그녀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가족으로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된 경험이었습니다. 새로 신권을 받은 그의 남편은 몇 줄 뒤에 떨어져 앉아 대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우리들 모두를 잊은 듯했으며 오직 남편만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단 위의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확성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과 나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신권을 받기 전까지는 가장 위대한 영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고** 든 비 헝클러  
회장님은  
아버지들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유혹에 저항하도록  
돕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방법을  
가르치도록 권고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들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가능하게 해 준 것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구덩이에 빠져서, 몸집이 작은 다른 아이를 굴 속으로 들여보내야만 구출될 수 있었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한 어린 소년에게 다가가, 내려가서 갇혀 있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무섭지만, 우리 아빠가 밧줄을 잡아 준다면 내려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리차즈 엘 에번즈 장로님(1901~1971년)은 이 교회의 모든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존경받는 이름과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대체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며 ...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가져 보지 못한 것들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해야 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팔로 안아 주며, 잘못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너그럽게 봐 주어서는 안 되며 필요할 때는 꾸짖고 그 후 더욱 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강하고 단호해야 하며 부드럽고 친절해야 합니다.”<sup>7</sup>

모든 가족 관계에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1897~1988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경전을 펼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성 요한이 기록한 복음에서 저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요한복음 8:29]”<sup>8</sup>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주는 어머니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모든 도움에 대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러분의 엄청난 책임에 필적할 만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각 사람을 위해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특별한 보살핌의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

주

1. “The Father and the Home,” *Improvement Era*, 1958년 7월호, 410쪽. 사무엘 에스 라이보위츠의 “Nine Words That Can Stop Juvenile Delinquency”, *Reader’s Digest*, 1958년 3월호, 106쪽에서 인용.
2. 윌리엄 레즈베리, “Crime Rates Rise from Fatherless Communities,” *Deseret Morning News*, 2005년 10월 10일, A면 11쪽.
3. *Bishop’s Training Course and Self-Help Guide* (1972년), 제2장 7쪽.
4. Conference Report, 1955년 4월호 27쪽 참조
5.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1쪽.
6. Emerson Roy West, comp., *Vital Quotations* (1968년), 118쪽.
7. *Vital Quotations*, 120쪽.
8. “What Would Jesus Do?” *New Era*, 1972년 9월호, 4쪽.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기사를 가르칠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가족에게 주의하도록 한다.)

1. 가르칠 때 기사에서 가족에게 가장 잘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원리들을 선택한다. 가족에게 그 원리들을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기사의 부분을 읽게 한다. 그 원리들에 대해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2. 가족이 아버지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한다. 한 가지 제언으로 각 가족이 다음의 말이 적힌 종이를 준비한다. “나는 \_\_\_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가족 각자에게 빈칸에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기사의 첫 단락을 읽고, 가족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그 종이를 드리게 한다.

3. 기사에서 제언된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각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기사에 있는 예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버지가 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한다.

4.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읽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고에 어떻게 더욱 신중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지 토론한다. 아버지(또는 할아버지)가 어렵고 힘든 일을 가족이 성취하도록 도왔던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한다.

다시  
해 보자!

### 마리안느 몬슨-버튼

**우** 리 아들 네이션이 두 살 반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가족 규칙을 어긴 대가로 가끔씩 그에게 타임 아웃 벌(역자 주: 아이들이 방에 혼자 있게 하는 벌)을 주었다. 그러나 벌 서기가 끝날 때 아들이 나타내 보인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아이는 종종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 경험을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방법을 간구했을 때 나는 “자, 다시 해 보자”라는 말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번 아들이 타임 아웃 벌을 썼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열의를 가지고 “자, 다시 해 보자!”라고 말했다. 갑자기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나는 이러한 시도가 일으킨 차이에 놀랐다. 타임 아웃을 마칠 때 아이는 벌을 썼다는 느낌을 갖는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곧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이션을 격려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번엔 더 잘 할 수 있어. 이번에는 상냥하게 대할 수 있어” 또는 “이번에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

이 말은 아들에게 크나큰 동기가 되어서 심지어 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종종 “엄마, 다시 해 볼 준비가 됐어요.”라고 말하곤 했다.

이 간단한 말이 아들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해 보자!”라는 말에 담긴 위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희망을 잃고 실수에만 연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대신에 그분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회개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18)

더 잘하겠다는 아들의 새로운 결심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대한 감사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무한한 속죄를 하신 구주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

# 잇을 수 없는 가정의 밤



전세계 교회 회원들이 간증하는 특별한 가정의 밤에 대한 추억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인도하며, 심지어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

**텍** 사스 알링턴 스테이크의 줄리오 시저 멀로스 형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남매들이 함께 자라던 시절이 생각난다. 우리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었고,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경전을 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 아버지에게 가정의 밤은 그가 배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였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정의 밤 공과 중 하나는 참으로 내게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선택의지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난 너희들이 평생 동안 기억할 한마디 충고를 주고 싶구나. 너희들이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이나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을 받을 때, 너희들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인지 생각해 보거라. 하나님인지, 교회인지, 부모나 가족인지, 아니면 네 자신인지 말이다. 너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상대는 바로 너희 자신이란다.’”

“성장함에 따라 내게는 부모님이 경고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시련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께서 주신 충고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의 권고를 들은 지 25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권고는 나를 크게 격려해 주고 있으며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 인생을 바꾼 가정의 밤

브라질 상파울루 상 미구엘 파울리스타 스테이크의 에데바니르 레오폴디노 형제는 자신의 삶을 바꾼 가정의 밤을 기억한다. 그가 친구인 리앤드로에게 부근에서 열리는 댄스파티에 갈지 물어 보려고 그의 집에 들렀을 때 그는 16살이었고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그의 친구는 파티에 가기보다 에데바니르를 가정의 밤에 초대했다. 에데바니르는 가정의 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채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다.

그날 밤에 대해 에데바니르는 이렇게 적었다. “정말 좋았다.” 그날 가정의 밤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나는 리앤드로의 형을

위한 환송 파티였다. 에테바니르는 이렇게 회상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아주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그 가정의 밤 이후에 나는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고 곧 침례를 받았다. 다음 해에 나는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 선교부(나중에 브라질 산타마리아 선교부로 이름이 변경됨)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리앤드로와의 그 특별한 가정의 밤 이후 꼭 8년 만인 지금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있다.”

### 군중 속에서 느끼는 평화

가정의 밤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 꼭 집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부의 류보브 살리모바 자매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가졌던 특별한 가정의 밤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저녁 8시에 있을 가정의 밤에 초대했다. “하지만 나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전에 해변가에 온 여동생의 말을 듣고 많이 놀랐다. 여동생은 ‘집에서는 가정의 밤을 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동생은 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은 찌푸린 얼굴의 억지 웃음이었다. 나는 동생이 울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동생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다. 해변에서 가정의 밤을 하자는 동생의 제안은 놀랄 만큼 불합리한 것이었다. 사방에는 걷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일광욕을 하며 큰 소리로 웃는 사람들 천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변에서의 가정의 밤에 찬성했다.

“우리는 가져온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앉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 동생은 연차 대화 말씀이 실린 2002년 7월호 리아호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전부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 같았다.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우리에게 후히 퍼부어진 성신의 도움을 받아 평온해진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며 선을 위한 투쟁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로 가득 찼다.”

### 이러한 행복을 원함

페루 리마 수르코 스테이크의 카를라 산티바네스 카스트로 자매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한 특별한 가정의 밤이 생각난다. 우리 네 자녀들은 아버지의 공과를 집중해서 들었고, 재미있는 게임도 했다.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주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다. 그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 즉 그분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기면서 무척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의 기쁨에 찬 느낌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나는 우리의 가정의 밤을 하면서 부모님에게서 보았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나의 소망은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오래 전 그날 밤 느꼈던 것과 같은 사랑과 따뜻함과 보호와 안전함을 가정의 밤에서 느끼는 것이다.”

### 혼자만의 가정의 밤

낸시 프랑스 스테이크의 베렝제르 까비알르 자매는 이렇게 적고 있다. “몇 주 전 스테이크

반대쪽: 필립핀 마닐라의 벨라스코 가족이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해 모였다.  
다음 쪽: 칠레 산티아고의 파르도 가족이 가정의 밤을 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



### 가정의 밤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위로 자녀들을 모으십시오.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가정의 힘과 단합이 이토록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1899~1973년), “Follow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Ensign*, 1973년 7월, 95쪽.

회장단의 한 분과 인터뷰를 할 때 나는 가정의 밤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고 받았다. 나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밤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험 삼아 한 번 해 보기로 했다. 다소 회의적이긴 했지만, 나는 그 다음 주에 결심을 이행해 보기로 했다. 나는 기도로 가정의 밤을 시작했고 찬송가를 몇 곡 불렀다. 그 순간부터 나는 영을 매우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구절을 읽고 내 생각을 몇 가지 적은 다음,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몇 곡의 찬송가를 부르고 가정의 밤을 마쳤으며, 이는 나의 영을 고양시켜 주었다. 45분간의 가정의 밤 동안, 나는 천국에 조금이나마 발을 디딜 수 있었다.”

#### 여섯 살짜리 아이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일부 가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한 가지 어려움은 가정의 밤 동안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서고 영감을 주느냐 하는 문제다. 뉴욕 시러큐스 스테이크의 크리스틴 카터 자매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최근에 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으러 성전에 갔다. 나는 가정의 밤에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잘 준비했지만 여섯 살짜리 아들 타일러는 듣지 않고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용기를 잃었고 공과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의 속삭임으로 인해 나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성전에 참석하는 게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알고 있니? 그 말의 영향은 대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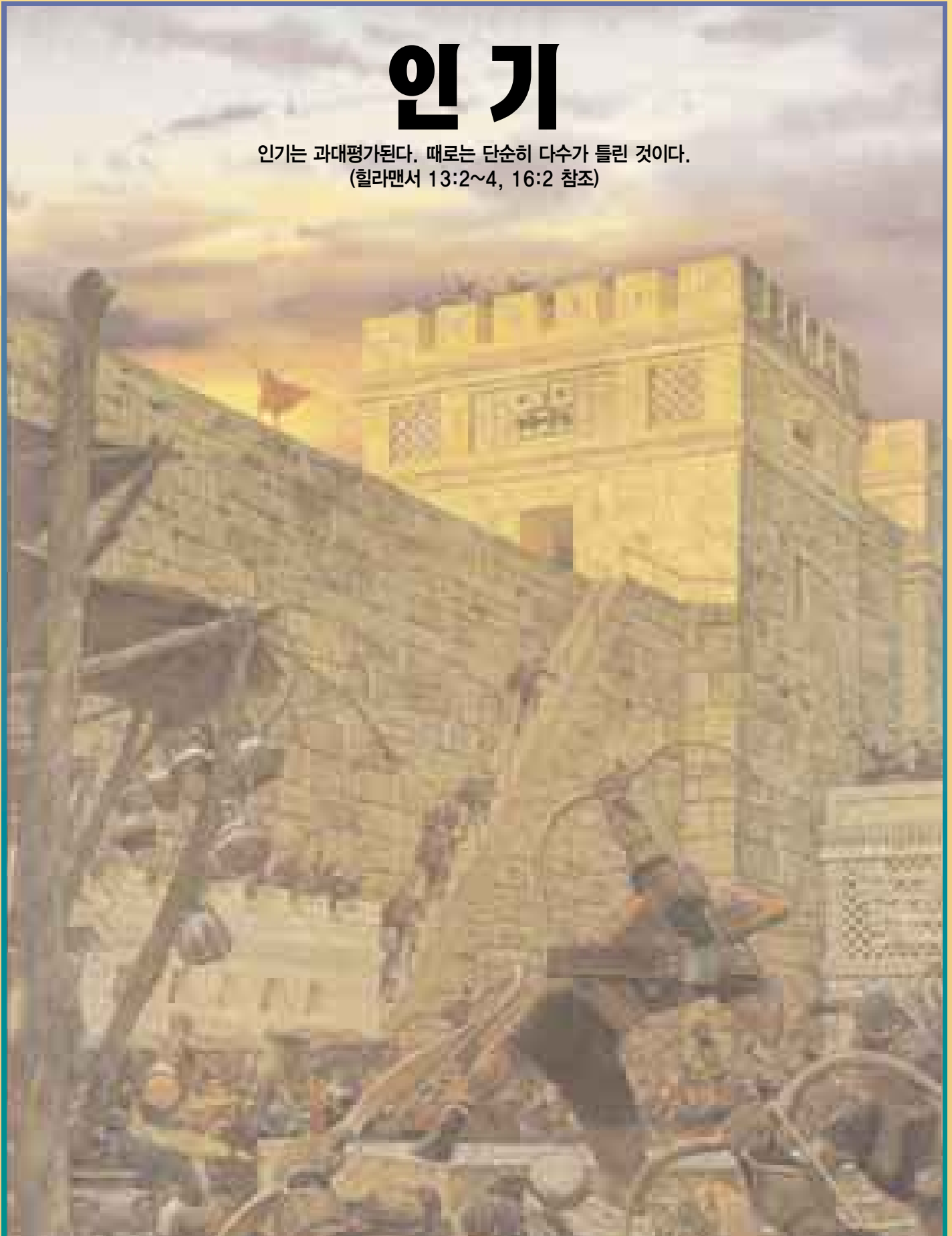
것이였다. 아이는 진지해졌고 성전에 대해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우리는 성전 사진을 보며 감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를 위해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거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함께 성전 사진으로 된 퍼즐을 맞춘 후,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 번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불렀고 타일러는 여러가지 다른 성전 사진으로 복도를 장식했다. 또한 복도 등을 켜는 스위치 커버를 성전 모양으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직접 솔트레이크 성전 그림을 그렸다. 이제 불을 켤 때마다 우리는 성전이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길을 밝혀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공과를 하는 동안 영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린다.” ■



# 인기

인기는 과대평가된다. 때로는 단순히 다수가 틀린 것이다.  
(힐라맨서 13:2~4, 16:2 참조)



레이먼드 시무엘이 제안하다, 아놀드 프리이베르그, 수잔 윈터스의 아이디어

# 가족 유산을 나눔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피난처는 바로 우리 가족과의 훌륭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20** 02년 8월 초순에 제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80번째 생일을 맞아 중년에서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저는 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제 고향인 유타 주 로간으로 데려가서 이 도시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을 그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로간에서 가족에게 보여 주고 싶은 곳 아홉 군데를 정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그 장소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 성구를 한 가지씩 선정했습니다.

## 1. 로간 고등학교의 교훈: 자신의 잠재력을 살려라

“몇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입을 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재능을 숨김이니라”(교성 60:2)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으며 저의 재능을 확대하고 키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은 자신의 잠재력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하든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면 새로운 재능에 대한 자신감과 발전이 올 것입니다.

## 2. 로간 태버나클의 교훈: 복음 봉사의 기쁨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모사이야서 2:17)

제 아버지는 근 20년 동안 로간 캐쉬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교회 봉사가 큰 기쁨을 가져오며,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던 태버나클에 들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세운다는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봉사할 때 사용될 더욱 많은 재능과 능력을 축복해 주시므로써 여러분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일한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3. 아버지 법률 사무소의 교훈: 인격과 고결성을 길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0~12)

저는 가족에게 제가 은행업을 위해 어떻게





페리 장로가 유타 주 로간의 아홉 군데 중 한 곳인 유타 주립 대학 캠퍼스에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페리 장로는 그곳에서 자신 인생의 한 가지 경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구를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반대쪽: 젊은 아버지였던 시절 세 자녀들(왼쪽부터-바바라, 린다 게이, 리)과 함께한 페리 장로.

준비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을 대변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로 돈을 저축해서 퍼스트내셔널 은행 주식 10주를 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제가 가진 10주에 대한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제게 은행의 업무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은행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고용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은행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은행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근면한 사람으로서 고결성, 윤리, 좋은 학습 습관 및 품성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음을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 4. 출생지의 교훈: 우리 유산의 가치

“볼지어다, ... 우리 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힐라맨서 5:6)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분께서 쌓아 오셨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현재와 세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그러한 영속적인 가치관을 가져다줍니다.

#### 5. 가족이 살았던 옛날 집의 교훈: 훌륭하신 부모님을 가진 축복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위쪽, 윗줄: 페리 장로의 부모, 엘 톰 형제와 노라 손 페리 자매; 소년 시절의 페리 장로. 가운데 줄: 가족과 함께 (뒤에 서 있는) 청년 시절의 페리 장로, 로간 고등학교. 아랫줄: 조카를 안고 있는 페리 장로; 1937년, 외가 가족 모임. 반대쪽: 유타 로간 성전; 어린 시절 집 문간에서의 페리 장로.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니파이전서 1:1)

저는 저의 가족에게 인생에서 달성하는 성공에 대한 영에는 사실 훌륭한 인생의 출발점을 제공한 부모님의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셨으며 봉사와 존경과 성실의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셨고 바쁜 생활에서도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들을 가르치며 격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훌륭하고 신중한 주부이며 신중한 가정 재정 관리자이자 최고의 요리사이셨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6. 젖소 목장의 교훈: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성 50:24)

우리는 한 모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체크인을 한 후, 저는 가족에게 “오늘밤 너희들은 예전에 우리 젖소 목장이었던 곳에서 잠을 자게 될 거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텔은 목장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저는 쟁기질하고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고 물을 대 주고 수확을 하던 시대에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세대들은 우리가 받았던 이러한 축복들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하지 않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우리를 좀 더 훌륭한 기회들로 이끌어 줄, 앞으로 계시될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7. 아이스크림 가게의 교훈: 전통의 가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قم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قم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교성 130:2)

로간으로 여행을 할 때마다 아이스크림 콘을 사 먹는 것은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전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좀 더 중요한 전통으로는 교회 활동, 교회 봉사, 가정에 충실함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세운 특별한 전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즉 영원토록 지속될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잡을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 8. 유타 주립 대학의 교훈: 행복하고 성공적인 구혼 기간을 갖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의 가치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교성 49:15)

제 구애 기간 대부분은 유다 주립 대학교에서였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댄스 파티와 야구 경기, 캠퍼스를 가로질러 도서관까지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종교교육원 수업 참석, 수업 중간중간에 복도에서 만나기, 캠퍼스 곳곳에서 산책하기 등등을 통해, 서로 더욱 잘 알게 되고 발전하는 관계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인생의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여러분에게 올 때 이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시기가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 9. 로간 성전의 교훈: 성전의 중요성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곧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채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1~3)

우리 삶의 중심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들을 받을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그분의 약속들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좀 더 늦은 시간에 오래된 로간 제9와드 건물을 구경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족들이 모이기 위한 방이 하나 준비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진들을 비롯하여 제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을 포함한 제 인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결혼 사진과 유아 축복 사진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겼던 이벤트의 사진들로 만든 콜라주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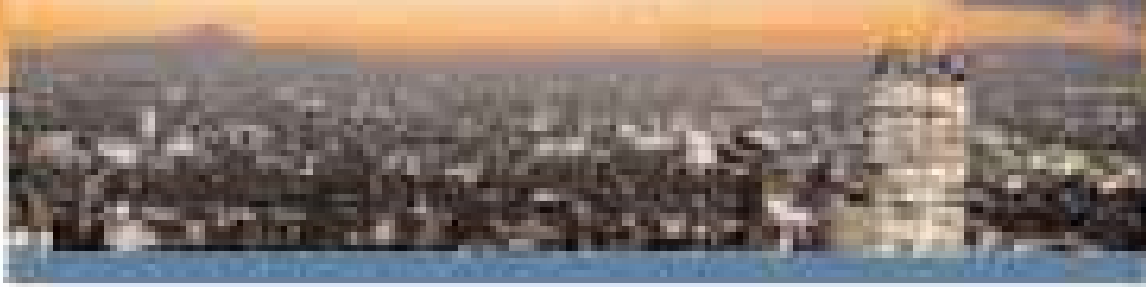
일요일 아침, 우리는 제9와드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감독으로 있던 제 아버지의 감리 하에 건축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8년 동안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복음이 제 인생에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한 간증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솔트레이크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준비한 맛있는 생일 정찬을 가족이 들기 전에 저는 자녀들에게 여행 중에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피난처는 바로 우리 가족과의 훌륭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 필멸의 삶을 여행할 때 불시에 닥치는 폭풍우로부터 우리 각자가 구원과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

2002년 8월 20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교육 주간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



# 도전에 맞섬

도쿄의 십대들이 힘든 유혹에 어떻게 맞서는지 이야기한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어느 날 방과 후, 기타하라 유리야의 친구들은 새 만화책 한 권을 그녀에게 보여 주고 싶어했다. 장미반원인 유리야는 이 만화책에 재미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 그 책은 외설물이었던 것이다.

그때 즈음, 꿀벌반인 사이조 준코도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담배에 불을 붙여 준코에게 건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와타나베 쇼의 학교에서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마약을 판 혐의로 체포되었다.

다행히도, 유리야는 만화책을 내려놓았고, 준코는 담배를 거절했으며, 제사인 쇼는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고자 노력했다.

교회가 일본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이들 십대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에 직면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치르기로 한 시험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혹에 맞서 살아감

다른 스테이크에서 온 젊은 회원들에 따르면,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지혜의 말씀을 여기는 것은 도쿄에서는 흔한 유혹이다.

몇몇 청소년들은 십대가 되는 즉시 담배의 유혹을 받았다. 어떤 십대 청소년들은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유혹에 직면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유혹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는 도쿄 십대들에게 있어 흔한 함정이다.

“여기서는 담배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배를 사지 않는 게 오히려 힘든 일이죠.” 라고 집사이며 쇼의 남동생인 와타나베 히카루가 말한다.

술은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당면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문제다.

“학교 활동이 끝나면 보통 학생들 모두 어디론가 파티를 하러 가요. 때때로 제 친구들도 저한테 가자고 해요. 그 애들 말로는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십대들에게 있어 파티에 간다는 것은 곧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유리야가 말한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것이다.

이 십대 청소년들은 또한 외설물과 부도덕한 행위가 포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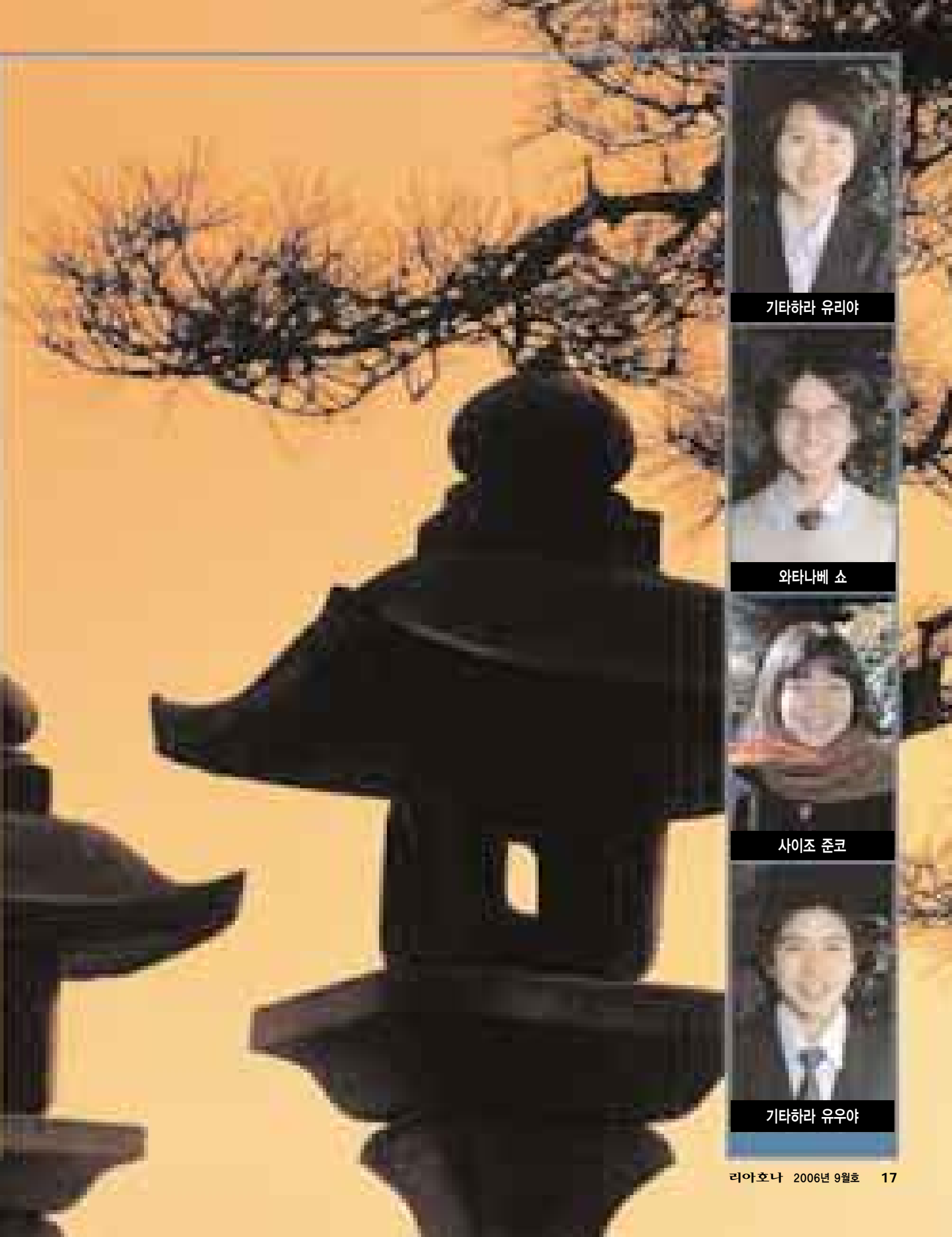
사이조 케이코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가사가 정말 끔찍해요.”

이러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후기 성도 십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과 어려움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들은 복음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찾을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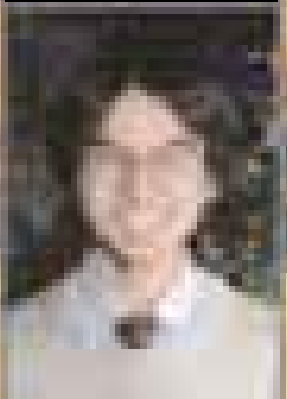
## 힘을 찾음

청소년들은 매일 그들에게 던져지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성신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제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라고 유리야의



기타하라 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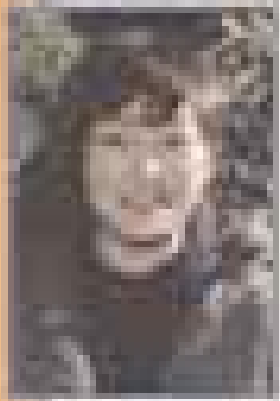
와타나베 쇼



사이조 준코



기타하라 유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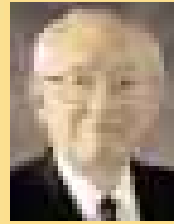


사이조 케이코

남동생이며 제사인 기타하라 유우야가 말한다.  
 이는 귀중한 교훈이다. 유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결국엔 우리도 교회 밖의 많은 청소년들처럼 담배를 피우고 외설물을 보거나 더 나쁜 일을 할지도 몰라요.”  
 이는 몰몬경에서 여러 번 가르치는 교훈이다. 주님의 영이 없이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처럼 약해졌다.”(힐라맨서 4:24; 또한 모사이야서 1:13; 몰몬서 2:26 참조)  
 “제가 영을 느낄 때면 유혹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힘은 바로 영으로부터 와요.” 라고 히카루가 말한다.

유우야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유리아는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성신과 더욱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유우야의 쌍둥이 형제인 유우키는 청소년 활동과 세미나리를 언급한다. 또한 준코는 교회와 가정의 밤에 참석하는 것이 영을 느끼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 큰 차이를 낳는다고 말한다. “저는 주님의 성전에 가면 특별한 권능을 느껴요”  
 라고 쇼가 말한다.  
 그는

**여러분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섭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감미롭고 아름다운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야호나, 2003년 11월호, 84쪽.

정기적으로 성전에 갈 때 유혹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쇼와 히카루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수행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에 성전에 가려고 노력해 왔다. 케이코와 준코, 그리고 유리아와 그녀의 형제들도 매주 금요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저를 강화시켜 줘요.” 라고 케이코가 말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누군가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언급하고 그들 중 절반이 지갑용 소책자를 꺼낸다.  
 “이 책자는 우리를 위해 쓰여졌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따르기도 쉬워요. 이 소책자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실천하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라고 유우야가 말한다.  
 다른 청소년들도 동의한다. 그들 대부분은 그

책자를 자주 활용한다. 준코는, “우리는 거의 매주 청년 모임에서 이 책자를 읽어요.” 라고 말한다.

히카루는 그 책자가 유혹을 극복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유혹과 씨름할 때 경전을 상고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때때로 경전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카드는 항상 갖고 다닐 수 있고, 도움이 돼요.”라고 그가 말한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 소책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선택에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왔다.

유우키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은 단지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으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배웠어요. 이 책자는 복음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말해 줘요.

“소책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의 표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책자는 경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라고 쇼가 말한다.

케이코는 “저는 책을 별로 안 읽지만, 소책자는 읽기 쉬워요. 책자 내용에 집중할 때, 그 내용이 정말 옳다는 걸 느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소책자는 참으로 우리 시대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이 세대의 청소년들 또한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이 자주 들은 말이지만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와 왕국을 21세기로 인도해 가도록 주님께 의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악함과 악이 위력을 떨치는 때에 이 지상에 오도록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도전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성장하여 신권의 책임을 감당함”,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9쪽)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에 가까이 머물고 주님의 권고를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입니다. ■



기타하라 유우키



와타나베 히카루

## 유혹하는 이가 친구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느냐는 차이를 낳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택하면 많은 유혹이 따를 거예요.” 라고 와타나베 쇼가 말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맞설 때가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보통 좀 더 쉬워진다. “담배는 몸에 좋지 않아.”라고 준코 이조는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말했다. “제 친구는 담배를 끊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맞서는 것이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타하라 유우키는 “친구들이 나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만약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제가 다른 데로 가요.”라고 말한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품위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언젠가 사이즈 케이코의 친구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친구는 제게 헤드폰을 내밀었지만 그 음악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음악은 멋진데 내 취향이 아니네.’라고 말하고는 헤드폰을 돌려 주었어요.”

# 리카르도는 알고 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브라질의 루이스  
리카르도 다 실바  
형제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경험을 갖고  
있다.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리**카르도와 친구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의 인봉실 밖에 서 있었다. 그들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 성전은 이제 재헌납될 예정이었고 지금은 일반 공개 기간이었다. 그들은 함께 있던 지도자에게 자신들은 왜 들어갈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로 제지하는 영을 느꼈다. 그것은 선한 영이었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깨달았다. 이 방은 고든 비헝클리 회장을 위해 예비된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 잠시 머무르며 주님의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영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리카르도와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걸까?

루이스 리카르도 다 실바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주님께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그분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신경을 쓰시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의 영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다. 그는 주님께서 집과 학교와 교회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때에 대해 차분하게 말한다. 한 가지 경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의  
일반 공개 기간 동안  
가졌던 경험 후,  
리카르도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신경을  
쓰시겠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는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한다.

“저는 어느 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며 친구들과 성전에 있었어요. 우리는 침례실의 강의실에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빛이 그 방에 가득 차고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신지를 알기 위해 기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게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느낌은 강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기도는 신성한 것입니다.”

리카르도의 간증은 그날 강화되었지만, 11살이 되기 전에는 간증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교회로 초대했다. 그는 교회가 좋아서 계속 다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침례 권유를 받았을 때 그가 교회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선교사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허락을 해 주셨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 이후로 리카르도는 늘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제자로 생활해 왔다. 그는 현재 브라질 바루에리 스테이크 바루에리 와드에서 제사 직분을 갖고 있다. 리카르도는 교회에 가기 위해 4킬로미터를 걸어야 하지만, 대체로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는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모임에 오고 싶다고 말한다.

비록 가족 안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기는 하지만, 그는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전히 다 한다. 그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간증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신권회에서 노래 반주를 할 수 있도록 피아노도 배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함이에요.”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이제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원한 시각으로 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의 빛을 받는 것일까? 왕국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한 것일까? 참으로 그렇다. 리카르도에게 물어 보라. 그는 알고 있다. ■



# 주님을 영원히 신뢰함



마가렛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우리가 그분의 영의 속삭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이후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는  
손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야는 어려운 일에 부름 받았다. 그는 유대 백성들이 배도 속에서 생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통치자들의 지도를 따르던 시기에 그들의 선지자였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우상 숭배가 증가하고 도덕적 율법을 위반했던 시대로,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적대적인 이웃 나라의 군대가 밀려오는 상황에 직면했다.

백성들에게 주는 이사야의 권고는,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믿으며,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이사야 26:4)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을 때 그들은 번성했다. 그러나 성약의 이스라엘 집이 궁극적으로 신성한 권고를 거부했을 때 이사야는 슬픔 속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영감에 감동되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파멸과 흠어짐에 대해 예언했으며, 살아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속박되는 것과 유다의 힘과 번영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위대한 예언적 부름을 통해 또한 우리, 즉 후일의 성약의 백성들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지상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후일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집에 약속된 축복들을 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 나는 …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

44:1, 3)

이사야의 말씀은 특히 우리를 위해 보존되었다. 그의 말씀은 경전 곳곳에서 언급된다. 물문경의 선지자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준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으므로, 이사야가 말한 것으로서 너희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많으니라.”(니파이후서 6:5) 이사야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 주를 찾음

이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정치적 및 도덕적 전쟁터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사야가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를 신뢰하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지시와 힘과 보호를 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는 성신의 은사가 주어진다. 성약을 지키고 매주 성찬을 취하여 그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그의 영과 함께”(모로나이서 4:3; 교리와 성약 20:77)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우리가 그분의 영의 속삭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이후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는 손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인도 외에도,  
나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세 가지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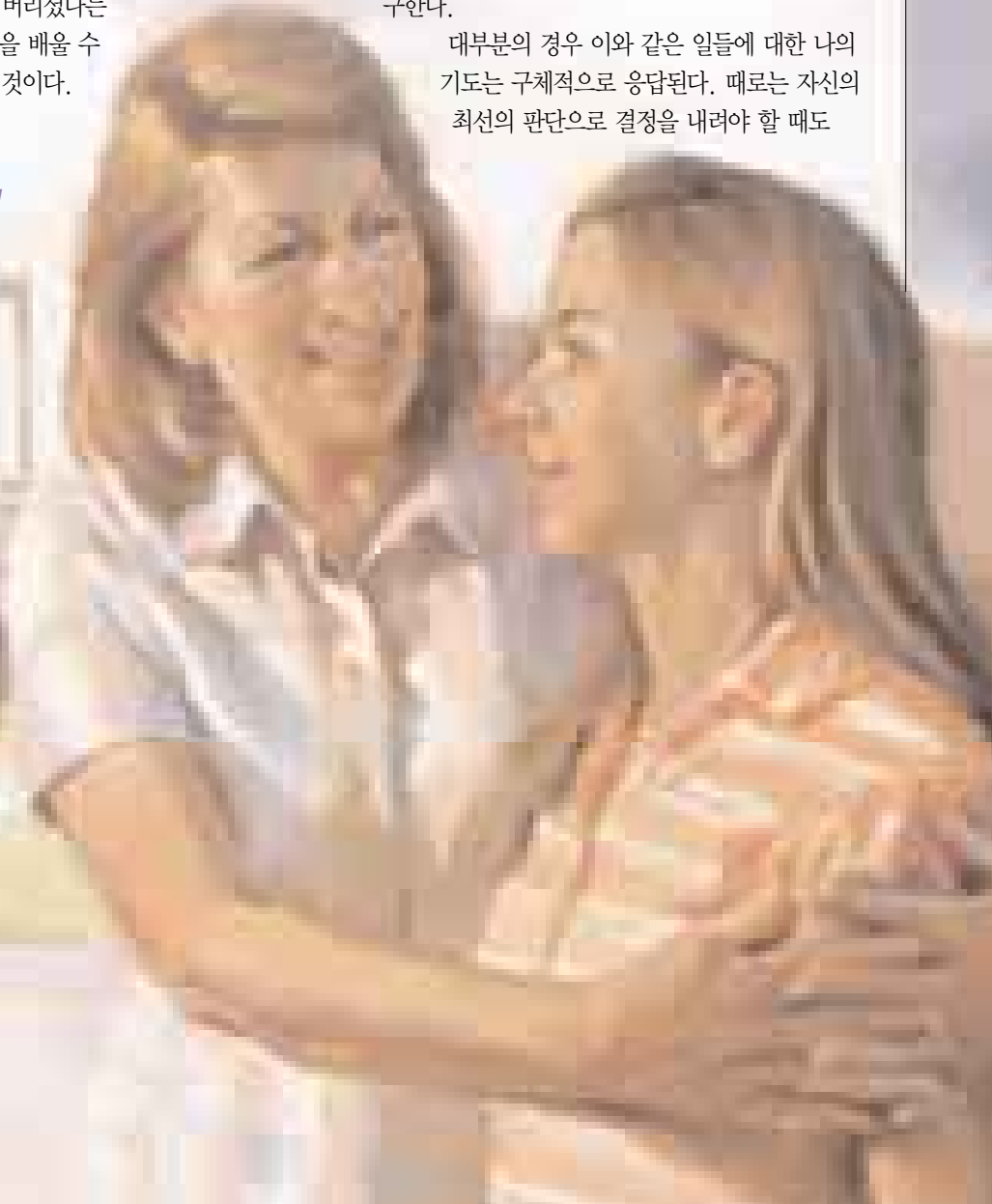
1.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2. 주님은 많은 경우 우리가 구체적인 인도를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주 영향을 미치실 것이다.
3. 우리가 역경에 직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그분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축복하실 것이다.

### 신성한 인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며 축복이다.  
우리는 결혼할 상대와 시기, 추구해야 할  
교육이나 직업, 또는 살 곳을 결정하려 할 때, 부름에서 봉사하는  
방법, 가족의 일을 돕는 방법, 또는 이웃이나 자녀를 돕는 방법을  
구할 때, 그리고 역경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 알아야 할  
때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여건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나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응답된다. 때로는 자신의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갑** 자기 우리 딸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일찍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머리에  
떠올랐다. 주님께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점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 때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때로는 자신의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있다.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른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실 때 나는 내 삶에 미치는 그분의 손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나는 또한 주님께서 관대하시며, 우리가 인도를 구하지 않았던 일들에서도 종종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 직책에 출마했다. 그날은 선거일이었고 나는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로 분주했다. 갑자기 우리가 선거에서 졌고 딸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일찍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시계를 보았고, 선거 결과가 발표될 시간이 되었을 때 학교에 도착했다. 정문을 걸어 통과했을 때, 선거에 입후보했던 모든 아이들이 현관 홀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선거 결과가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되기 전에 미리 통보를 받고 있었다. 딸아이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우선순위를 추스를 수 있도록 차를 타고 집에 일찍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히 여겼다.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점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나는 구체적인 인도를 구하지 않았던 다른 때에도 영의 속삭임을 느꼈던 적이 있다. 영의 속삭임은 내게 경고를 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려” (모사이야서 18:9) 노력하는 중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던 때에도 내게 도움을 주었다. 공과나 말씀 중에 가르쳐진 진리를 확인해 준 적도 있었고, 자녀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심할 때, 또는 그들이 세상을 따르려는 욕망을 느꼈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을 인도해 준 적도 있었다. 해야 할 말이나 취할 행동이 종종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교리와 성약 100:6)이라는 점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각각 역경에 직면할 때, 때로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사야는 그럴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 네 뒤에서 말 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20~21)

역경은 종종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고쳐 주실” (이사야 19:22) 것이다. 역경의 기간 동안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강화시키고 고치시는 그분의 권능에 이르는 문을 열게 된다.

##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비유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그의 권고를 기뻐하게 될 것임을 나는 안다.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그리고 그분의 영의 속삭임을 따를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며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8~9) ■

## 각 자매를 위해 봉사하고 격려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하고 소속되어  
있으며, 소중하고 사랑 받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도와준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신앙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 준다.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 받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모사이아서 18:21:** “또 그가 그들에게  
...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

###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가 서로를 보살필 때마다 사랑, 인내,  
친절함, 그리고 영적인 헌신과 같은 신성한  
자질들이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고 또한 우리 영혼을 넓혀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약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는 전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단순하지만 뜻 깊은 봉사를 수행하는  
충실한 자매들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 상호부조회의 마음과 영혼”  
[2003년 가을 일반 공개 기간에 행한  
말씀]]

###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아 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부나  
와드 회원, 이웃, 심지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닭은 우리 친구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5쪽]

상호부조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격려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성들이 함께  
어울릴 때 그들의 ... 삶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

“그 누가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애로운 행동, 텅 빈 식탁 위에 놓여진  
음식, 질병의 절망스런 시간에 커진 신앙,  
싸매진 상처, 사랑의 손길과 조용하고  
안심시키는 말에 의해 호전된 고통, 죽음과  
그에 따른 외로움의 시간에 전해진 위로의  
깊이를 잴 수 있습니까?”

“선지자 조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나무에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 교회의 여성은 그녀가  
모사한 활동들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위해 굳이 하늘에 앉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이미 지상에서 하늘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Ambitious to Do  
Good”, Ensign, 1992년 3월호, 4~5쪽]

### 조셉 비 워스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것을  
말하고 완전한 생각을 하고 완전한 느낌을  
얻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봉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러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친절의 미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8쪽] ■

# 주님의 음성을

## 듣는 법을 배움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지니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론 엘 웨스트  
교과 과정부

**자** 신이 장로정원회, 대제사 그룹, 또는 상호부조회 모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자. 교사가 이제 막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를 시작하고 있을 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모두 일제히 돌아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선지자를 바라본다. 힝클리 회장이 침묵을 깬다. 그는 조금 늦어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함께한 회원들과 몇 가지 권고를 나눌 수 있는지 묻는다.

교사가 힝클리 회장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소를 머금고 공과를 계속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몇몇 회원들은 손을 들고 자리를 같이한 선지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장황한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다.

약 40분이 지나자, 여러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든다. 교사가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말한다. “저, 이제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교사는 시계를 바라보고 “아!” 하고 외친다.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항상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런 다음 힝클리 회장님께 몇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힝클리 회장의 말씀 후 교사가 모두에게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폐회 기도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교실에서 나간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이다. 만일 힝클리 회장이 여러분의 장로정원회, 대제사 그룹, 또는 상호부조회를 방문한다면, 교사는

분명히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시간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힝클리 회장의 연차 대회 말씀, 또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가르침을 토론하라는 지명을 받을 때는 어떤가?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을 기울이는가? 일요일 공과를 위해 각 말씀이나 장을 미리 공부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후일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를 보자.

몇 주 후, 장로정원회 (또는 대제사 그룹이나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 정원회 회장이 몇 가지 광고 사항을 발표하고는 나머지 시간을 교사에게 넘긴다. 그런 다음 교사는 공과실 앞으로 나가서 “오늘 공과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가르침 제17장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교재를 열어 해당 공과의 첫 페이지로 가서 읽기 시작한다.

교사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 읽자,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든다. 몇 달 전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인봉된 곤잘레스 형제이다. 교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 손을 들고



있던 곤잘레스 형제는 결국 포기한다. 교사는 계속해서 읽어 나간다.

몇 페이지를 읽은 다음 교사는 지난 밤 그 장을 공부했을 때 참으로 영감을 주었던 부분을 읽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손을 들었다가 잠시 후에 내리고 만다. 나누지 못한 간증으로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교사는 계속 읽기만 한다.

정원회에 있는 형제들을 둘러본다. 몇몇 형제들은 교사를 따라 읽고

있다. 어떤 형제들은 바닥을 바라보며 주기적으로 손목시계를 본다. 몇몇은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교사가 공과 전체를 다 읽자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는 필요 이상으로 일찍 공과를 마무리한다. 폐회 기도가

**우** 리가 후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게 하라].”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교실에서 나간다.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원회 회원들 및 반원들의 간증과 경험을 몹시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의미 있는 토론을 장려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법하지 않고 또 약간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에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따르는 두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때때로 우리는 반에서 좋은 토론을 이끌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회 자료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때때로 준비된 교과 과정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귀중한 토론을 막아 버린다.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 또 훌륭한 토론을 장려할 수 있을까? 나는 영의 권능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같은 권능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교리와 성약 50:17~22 참조) 비록 모든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게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성구를 재발견했다.

###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이 말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이 말이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언할지니라.”

“이는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음성인 연고라. 이는 이것이 나의 영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짐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너희는 이를 서로에게 읽어 줄 수 있되 나의 권능으로써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내 말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8:34~36)

이 권고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을 일컫고 있으나 또한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 나아가 일요일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가르침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후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서로에게 읽어 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 주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1:38 참조)

만약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갖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서로 나눌 때 가지는 소망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공과가 끝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내용에 대해 놀라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기뻐하기를 바란다.



###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단지 읽어 주기 위해 일요일마다 모이지는 않는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교리와 성약 88:122)

우리는 서로의 힘을 필요로 하며, 반 토론은 그런 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교사가 공과를 준비하는 동안 배운 진리에 대해 간증하며 주님의 도구로 행동하는 모습이 좋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내 간증은 좀 더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나눌 때 내 경험이 풍성해진다. 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찰력 있고, 정직하고, 신앙을 증진시키는 토론에 대해 감사한다.

### 읽기 및 토론

교리와 성약 18편 34~36절과 88편 122절을 같은 공과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단순한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먼저 교리와 성약 18편 34~36절로 시작한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읽음으로써 시작한다. 주님의 말씀을 토론의 토대로 하고, 교리와 성약 88편 122절에 있는 원리를 따름으로써 그 토대 위에 쌓아 나가는 것이다.

이 규칙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접근하는 방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와 배우는 사람이 이 규칙을 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교회에서 출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소개.** 이 부분에는 개별 학습 및 공과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교사가 교재에 근거하여 공과를 준비할 때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약속되어 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제6장.**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이라는 제목의 이 장은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배울 때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영감 어린 권고를 담고 있다.

-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의 끝부분에** 있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위한 유의 사항. 이 유의 사항은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를 준비하기 위한 간단한 과정을 약속하고 있다.

### 하나가 됨

또 한 가지 예가 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몇 년 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근거한 공과를 즐거이 들으며 장로정원회 모임에 앉아 있던 때를 기억한다. 공과 도중 정원회의 한 회원이 선언문 일부를 읽었다. 교사가 공과를 진행하려 할 때 또 다른 정원회 회원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인용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의 얼굴 표정과 음성은 그것이 평범한 질문이 아님을 나타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간청이었다. 내 마음에도 있었던 간청을 그가 먼저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마음에서 우리란 이 질문이 공과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교사는 계획된 공과를 잠시 제쳐 두었다. 정원회 회원들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았고, 그들 친구의 질문에 대한 제언과 몇 가지 경험을 나누었다. 그런 다음 교사가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고 선언문에 있는 다른 진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과를 계속했다. 토론은 불과 몇 분 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내 가족과 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리와 성약 18편 34~36절과 88편 122절은 그 정원회 모임에서 하나가 되어 다루어졌다. 그 과정은 겸손하고 현명하게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을 것을 권유한 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원회의 한 회원이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과정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각각 다른 배경을 지닌 회원들이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했을 때,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 되었다. 나는 성신의 권능에 의해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 다음에는 내 이웃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다. 나는 그 전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



# 기적 속으로 떨어짐

재닛 토마스  
교회 잡지

**그** 사건은 전세계 곳곳 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다. 후기 성도 선교사가 호주에서 7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는 23층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때때로 기적은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떨어졌던 장본인인 매트 와이리치 장로에게 그 사건의 세세한 모든 부분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이다.

텍사스 프레드릭스버그 출신의 와이리치 장로는 호주 시드니 남 선교부에서의 선교 사업이 겨우 삼 개월 남아 있었다. 2004년 6월의 어느 준비날, 와이리치 장로와 다른 세 명의 선교사들은 허락을 얻어 근교의 한 공원으로 가서 호주에만 서식하는 몇몇 동물들을 보러 갔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 전망대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았다. 바로 근처에 있었기에, 그들은 잠시 들러서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은 어떤지 보기로 했다. 와이리치 장로가 그 날에 관해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며칠 뒤에 병원에서 그는



매트 와이리치  
형제는 호주에  
있는 이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동반자들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야 했다.

일행은 전망대로 걸어간 다음, 몇몇 동굴을 향한 전망대 아래쪽에 표시된 길을 따랐다. 그 길에는 전망대로 가는 투박한 돌계단이 있었고,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끈이 헐렸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 신발은 비탈길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와이리치 장로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신발이 길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관목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그는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일행은 와이리치 장로가 신발을 주웠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와이리치 장로를 볼 수 없게 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소리에 와이리치 장로가 응답하지 않자, 그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명의 선교사는 최대한 몸을 굽혀 절벽 아래를 살펴본 후, 기도하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휴대 전화를 찾으러 다녔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차 문이



**매트는 절벽 밑에서 헬리콥터로 구조되었다. 매트의 반지("신앙"이라 적혀 있음)는 그의 느낌을 말해 준다. 반대쪽: 떨어지고 나서 몇 주 후에 매트와 그의 동반자 피터슨 장로는 마커스와 메이 왕에게 침례를 주었다. 호주 시드니 성전에서의 매트와 그의 부모.**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달려가서 방금 도착한 사람에게 휴대 전화를 갖고 있으면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전화를 빌려 주었고 그들은 응급 구조 번호인 000으로 연락했다.

한 시간 후 어둠이 내릴 즈음, 구조대가 도착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열 탐지 헬리콥터가 위에서 날아다녔지만 와이리치 장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구조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것 같아 모두가 걱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다음날 새벽, 구조대는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은 와이리치 장로를 발견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의식이 희미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들것에 싣고는 헬리콥터로 후송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곳 의료진들은 뼈가 많이 부러지고 기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와이리치 장로는 머리에 어느 정도 흠이 생기는 했지만, 부러진 곳은 코뼈뿐이었으며, 눈 위에 작은 골절을 두 군데 입었는데, 모두 저절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이었다.

### 기적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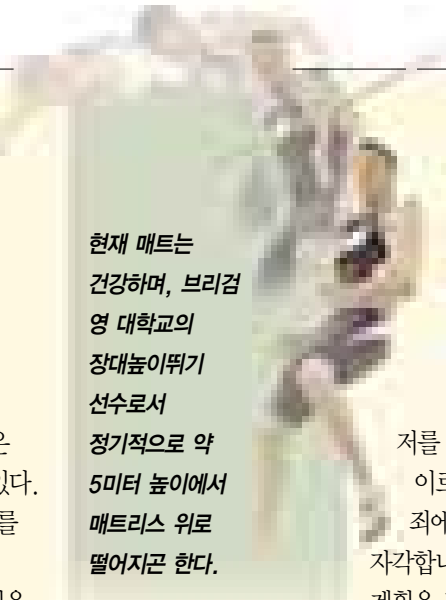
돌이켜 보며, 매트는 자신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었던 기적들을 열거해 본다.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매트는 장대높이뛰기 선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고등학교에서 전국 선수권 우승자였으며 육상 장학생으로 대학에 갈 계획도 갖고 있었다. 떨어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그가 받은 훈련이 그가 떨어졌을 때 적절히 대처해 부상을 줄이게 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 27미터를 급락하기 전 절벽 꼭대기에서 바위 턱 몇 군데를 스치면서 속력이 줄어들었는데, 그의 팔에 난 찰과상과 베인 상처가 그것을 말해 준다.

그때 날씨는 매일 밤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가 절벽 아래서 보낸 그날 밤에는 온도가 평소보다 10도 정도 더 높아서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땅에 떨어진 후 몇 미터를 기어갔고, 그의



**현재 매트는  
건강하며, 브리검  
영 대학교의  
장대높이뛰기  
선수로서  
정기적으로 약  
5미터 높이에서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곤 한다.**

머리는 아래쪽을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상 입은 곳의 혈액 순환을 용이하게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전문가들에 의해 구조되었고 뛰어난 치료를 받았다.

그의 생존 이야기는 호주 전역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도처에서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이 선교사가 속한 교회에 대해 면밀한 질문을 했다.

매트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축복들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저는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삶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단지 하루 하루를 살아가거나 실수를 나중에 만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저는 왜냐고 묻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에 놓인 도구였다는 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저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 성취할 일들을 갖고 계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게 유혹이 닥칠 때, 저는 죄에 빠지기 위해 구조된 것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트 와이리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다.

그는 완쾌되어 브리검 영 대학교 육상부에서 장대높이뛰기 선수로 뛰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



# 밝은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철십인

**여**러분이 내려야 할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는 주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주님을 믿느냐 마느냐를 바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거나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면 일이 잘 되고, 나쁜 일을 행하면 일이 잘못될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 큰 변화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받을 때 복음을 나누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바쳐야 하고, 교회에 참석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합당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신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교사로 봉사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세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많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다른 어떤 특정 기간보다도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간 동안 영원한 복음의 원리를 더 많이 배웠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 시절을 돌이켜 보며 그때 배웠던 교훈을 깨닫곤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장로님은 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청남들은 선교 사업을 할 책임이 있고, 청년들은 선교 사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여러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중 반 정도는 선교 사업을 했으며 그에 대해 행복해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지 않은 딸들도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청남이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열의를 갖게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남들이 용기를 잃거나 선교사로 나갈 자격을 잃게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들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어떤 일도

의를 행함으로써

모든 일은 결국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A hand holding a magnifying glass over a photograph of a man in a suit. The background is a warm, golden-brown color. The magnifying glass is held by a hand from the right, and the lens is focused on a small, square photograph of a man in a dark suit and white shirt, standing in a room. The text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magnifying glass.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청남 한 명을 만나 볼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 청남은 훌륭한 형제입니다. 그는 항상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청남은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성장했지만,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 청남은 19세가 되기 직전에 어떤 세계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지배인은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 질의 대답

때때로 여러분은 “과연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격려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하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작은 광산촌에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을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서 “이 일자리를 지금 받아들이면 부지배인 자리를 주겠다. 그러면 2년 후에 너 지배인이 될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일자리는 잃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네가 필요하거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질이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질을 정말 사랑해. 내가 이 일자리를 얻으면 광산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는 집을 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이 굉장한 기회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감독님과 이야기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감독님도 그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도 그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청년과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계획은 무엇이나?”

“질과 결혼할 거예요.”

“질은 무엇이라고 하든?”

“글쎄, 아직 말해 보지는 못했어요.”

“질이 너와 결혼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아니?”

그것은 그의 짐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질과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에게 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자리가 있으면 집도 살 수 있어. 우리는 가정을 시작할 수 있어.”

질은 “내게 프로포즈하는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선교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 선교사로 나가면 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일자리를 잃으면 우리는 수입도 없고 결혼도 못 해. 집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자, 기억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네 명의 형제들, 즉 아버지,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 그리고 총관리 역원마저도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질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교 사업이 없으면 질도 없어.”

다음날 그는 감독의 사무실에서 선교 사업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 주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임

그는 선교 사업을 했고, 그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질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사업을 했기에 확실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 장로는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은 기절할 듯 놀라며, “우리 집에서 대학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잖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가겠다는 거니?” 하고 말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선교부 회장님께 말씀드려 봤는데 그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고, 만약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영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결국 치과 의사가 되었고 훌륭한 자매와 결혼하여 훌륭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속편은 이리합니다. 그가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개업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광산은 문을 닫았고 사실상 그 마을도 폐쇄되었습니다. 그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그 가게는 수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사람의 지시나 단지 자신의 느낌만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질과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용자금을 얻었을 것이며, 갚지 못하는 용자금과 팔지 못하는 집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언제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만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의를 행함으로써 모든 일은 결국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

2004년 6월 8일,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열린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칠십인 정원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 나누는 것을 배움

**우** 리 대부분은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오와 주 디모인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은 최근에 개종했으며 새벽반에 참석하는 학생 중 두 명은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 복음을 듣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친구가 됨.** 여러분이 참된 친구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눌 것이며 여러분의 친구는 그것을 알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범이 됨.** 친구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실천하지도 않는 원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는 꽤 어려울 것입니다.

**봉사함.** 구주께서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레이맨인 개종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엘마서 17~18 참조)

**친구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움.** 교회 활동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히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후기 성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함.** 경청은 친구가 되는 일의 일부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눌 때,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보여 준 것과 같은 관심과 존중심을 보이게 합니다.

**물론결과 간증을 나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몇 가지를 나누고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나와 있는

약속을 언급하십시오.

**친구가 전임 선교사를 만나다록 권유함.** 선교사들은 우리의 교리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믿음.** 복음 진리에 대한 가장 단순한 간증이나 설명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증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인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믿음.** 지지하고 격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친구로 지내십시오. ■

사진 촬영: 스티브 버더슨, 모델이 표정을 취함



# 니카라과

## “아름다운 열매”를 갈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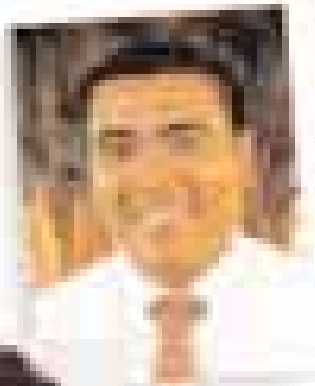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눔으로써,  
니카라과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평안을 얻도록  
돕고 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니카라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라고  
니카라과 마사야 스테이크  
상 미구엘 와드의 래리 주니가 형제는  
말한다. 그는 자국에서 단 한 해 동안  
스테이크 수가 2개에서 7개로 불어난 교회의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니가 형제의 말이 옳다면 니카라과 교회 역사에서 이 행복한  
순간은 최소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온 것이다. 이는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신의 영향과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의 영향이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요인이 회원들의 생활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니카라과 마나구아 스테이크 시우다드 산디노 와드의 루이스  
카스트리요 감독은, 니카라과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와 같은 상태를 더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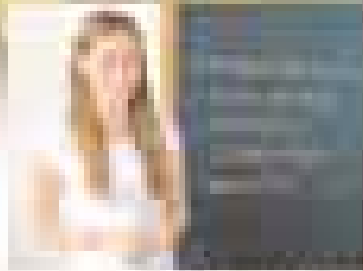
날,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마실 장소를  
찾으려 하나 찾을 수 없는 것에 비유한다.  
마침내 목을 축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니카라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인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는 그곳 교회의 성장 요인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니카라과 사람들은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나라의 오랜 갈등 후에 “사람들은 생활 속의  
평화를 찾고 있으며, 복음이 그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지도자들 및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킨 강력한 역대 선교부 회장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교사들은 가가호호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그들은 가르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 그 결과  
“선교사들은 침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도자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라고  
두려움 없이 권유하며, 주님을 믿는 신앙과 확신이 있습니다.”

### 봉사를 위한 헌신

주니가 형제는 선교 사업을 위한 후기 성도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표본이다. 그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귀환 선교사인 그 자신도 가능한 한 자주  
전임 선교사와 함께 봉사하러 나가며, 그의 친구 대부분은 적어도  
복음에 대해 기꺼이 듣고자 했다.

반대편 페이지: 지네스 캠프스 데 에스피노자, 전 마나구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루이스 카스트리요 감독, 마나구아 스테이크 시우다드 산디노 와드, 아래: 빅터 바에시요와 그의 아들, 빌터. 오른쪽: 신디 오르즈코가 마나구아의 미라플로레스 와드에서 청녀반을 가르치고 있다. 맨 아래: 마나구아 스테이크 센터



### 니카라과의 교회

인구: 약 5,500,000명  
 마나구아 면적: 약 1,400,000  
 니카라과 회원: 52,000명  
 스테이크: 7개  
 지방부: 5개  
 와드: 44개  
 지부: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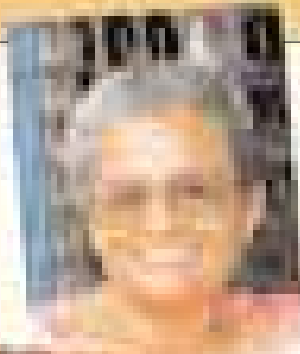


래리 주니가 형제는 소년 시절부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했다. 목수인 그의 아버지는 저축을 하라고 작은 상자를 만들어 주었고, 래리는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 기금을 위한 저축을 포기해야 했으며, 어머니의 치료비 지불을 돕기 위해 자전거까지 팔아야 했지만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그렇지만 다른 회원들의 도움과

회원이 아닌 몇몇 친척을 포함한 친척들의 도움으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축복받았다. 주니가 형제의 선교 사업에 대한 헌신은 친한 친구 다섯 명으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게 했으며 그 중 두 명은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니카라과 치난데가 스테이크 아코모 와드의





위: 미라플로레스 와드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그들의 집회소가 개축되고 있는 동안 임대 건물의 테라스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맨 위: 파울라 메를로 치난데가, 오른쪽: 세르지오 사엔스, 마나구아

파울라 메를로 자매는 선교 사업 기회를 결코 그냥 흘려 보내지 않았던 또 한 명의 회원이다. 선교사들이 회원들에게 가르칠 사람을 찾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면 그녀는 단순히 그렇게 한다. 그녀의 집에 찾아온 손님은 선교사들과의 모임이 진행 중인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어느 토요일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선교사들이 11명의 구도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가르치도록 주선해 주었다.

메를로 자매는 14년 전에 침례 받은 딸에 의해 복음을 소개받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의 딸은 파나마에, 아들은 온두라스에 살고 있다. 그녀는 중앙 아메리카로 여행할 때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도록 도왔는지 확실치는 않다. 사람들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는 초대를 거절하면, 그녀는 그들이 복음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의 밤에 초대했다.

무엇이 그녀가 선교 사업을 하도록 동기를 주었을까? “우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예요. 그리고 성전에 간 후에 저는 우리가 죽은 자나 산 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메를로 자매의 스테이크 회장인 에네스토 마라비아 형제는 모든 회원에게 바라는 본보기로 그녀를 든다. 마라비아 회장은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계명이자 귀중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언제나 회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일한다. 그는 모범으로 인도하며 또한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그들을 가정의 밤에 초대한다.

그는 “저는 선교 사업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원들이 선교사 수준에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성이 의미하는 것 때문에 (마라비아는 스페인어로 “놀라운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은 그를 선교 사업의 놀라운 사람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유머 감각이 있는 마라비아 회장은 이런 농담에 웃으며 반응하지만, 선교 사업에 대해서는 진지하다. 그는 스테이크의 선교 사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선교사 지역 지도자와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는 감독들에게 그들의 와드에서 와드 평의회를 통해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임무 지명을 점점하라고 강하게 격려한다. 이 평의회는 “와드 선교 사업의 중심”이라고 회장은 말한다. 그 모임을 갖지 않을 때 선교 사업은 부진해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천을 통해 배웠습니다.”

치난데가 스테이크의 한달 평균 침례 수는 45명이다.

### 가르침의 동반자

“회원들과 함께하는 계획 모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라고 니카라과 마나구아 선교부의 선교사로 미국 테네시 주 웨이벌리 출신인 윌리엄 제이 리노 장로는 말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그의 동반자는 그들의 지역인 마나구아에 있는 회원들과 매주 만났다. 회원들은 새로운 선교사에게 구도자를 소개하거나, 선교사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도자를 소개했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성공의 기초는 이와 같은 계획입니다.” 라고 레이아노 장로는 말했다.

코스타리카 출신인 그의 동반자 로드리고 레온은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비결을 그의 동반자의 경험, 그리고 현재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르침의 입문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돌렸다. “그 입문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100퍼센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레온 장로가 말한다.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고 레이아노 장로는 덧붙인다. 침례식이 정기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는 회원들은 그들의 친구들도 복음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레온 장로는 많은 회원들이 매주 구도자를 교회 모임에



데려온다고 말한다.

유타 주 머리 출신인 조슈아 카스텔러 장로는 선교사들은 회원들 자신이 선교 사업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와 그의 동반자인 엘살바도르 산타아나 출신 조나단 에스트라다 장로는

선교사들이 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회원이 침례 후에 동화되고 부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와드 회원들과 함께 노력한다. 사람들은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회원들과 와드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에스트라다 장로는 지적한다.

선교부 회장인 리카르도 바야다레스 형제와 함께 마나구아에서 가진 한 선교부 모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교사들의 열의와 사랑이 강하게 나타났다. 선교사들이 지시를 받고 선교 사업 성공담을 듣고 있는 가운데 기쁨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동이 발표되었을 때 “장로님, 그곳에 가게 되어 안 됐군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축하해 주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 직장에서의 간증

선교사들의 열의는 쉽게 옮겨 전달된다. 빅터 바예시요는 니카라과 마나구아 스테이크 회장인 페드로 아빌레스 형제의 직장 동료이다. 빅터 형제가 종교적 진리를 찾고 있을 때, 아빌레스

회장이 그에게 몰몬경을 주었다. 바예시요 형제는 복음에 대해 너무나 기쁜 나머지 2004년 11월에 침례 받은 이래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초대하는 일을 습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와 함께 자주 가르치러 나간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들

또한 선교 사업의 영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밤 그의 십대 아들은 니카라과 지도를 펼쳐놓고 바예시요 형제가 성장했던 그 나라의 북부 지방을 보고 있었다. 아들은 지도상에서 여러 곳을 가리키면서 “아빠, 여기, 또 여기, 그리고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네요.” 라고 말했다고 바예시요 형제는 회상한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얼마나 빨리 그곳에 갈 수 있을 지 궁금해 했다.

니카라과 그라나다 지방부 그라나다 지부의 실비아 자무리아 바네가스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침례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받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주님께 약속드렸어요.”

맨 왼쪽: 선교사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위: 로드리고 레온과 윌리엄 제이 레노, 왼쪽 위: 조나단 에스트라다와 조슈아 카스텔러, 아래쪽: 실비아 자무리아 바네가스, 그라나다.



침례 받은 지 4년이 지난 2005년 5월에 그녀는 선교 사업을 위해 과테말라로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로 부름 받기 오래 전에 이미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고 자매 선교사와 함께 일해 왔다. 자무리아 자매는 촛불을 켤 수 있는 자들은 그 빛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 격언을 인용했다.

니카라과 레온 지방부 엘 코이올라르 지부의 라울 디아스 에르난데스 형제는 교회에서 성장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해 왔다. 그는 선교사와 함께 일했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와 간증을 나누는 것은 특권이지만 선교사들이 그의 매부를 가르치는 것을 그가 돕는 데는 더 많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누나가 가족과 함께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회원들의 영향

니카라과 마사야 스테이크 회장인 호세 콘트레라스 형제는 그의 스테이크 개종자 침례의 4분의 3 이상이 복음 속에서 찾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추산한다. 최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콘트레라스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아직 생각해 내지 못한 사람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하기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기 위해 나갈 때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콘트레라스 회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의 활동 비율을 늘 점검한다. 그는 지금 당장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걱정을 한다. 그 회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들이 선교사에게서 배운 단순한 교리,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약속된 축복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활동화시키려는 노력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마나구아 스테이크의 전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지네스 캄포스

데 에스피노자 자매는 자신이 방문을 맡은 자매를 활동화시켰던 방문 교사의 창의력에 감탄한다. 그 방문 교사는 방문하는 자매에게 방문 교사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를 물문경에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그 자매가 자신에게서 영적으로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접근 방법은 다른 사람을 활동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때때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저활동 회원에게도 복음의 축복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의 집에서 소규모 그룹 모임을 갖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다.

에스피노자 자매는 2001년에 침례 받았으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강한 열의를 갖고 있다. 그들이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고 그녀는 말한다.

복음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니카라과에서는 교회 모임 대부분의 주제인 듯하다.

마나구아 스테이크의 아빌레스 회장은 니카라과 최초의 스테이크 회장 중 한 명으로 지난 수년간 교회 성장을 지켜 본 증인이다. 그의 나라는 심한 가난으로 시달렸으며 오랜 전통과 유혹의 힘이 너무 강했다. 이 나라에서는 선교 사업과 지속적인 활동의 증가로 인해 교회 시설이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빌레스 회장은 성신과 사랑이 많은 회원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마나구아의 한 와드 대회에서 그는 복음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밋이라는 주제로 말씀했다. 회원들은 사탄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놓아 둔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 안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며, 단합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호소한다. 이것이 니카라과에서 영적인 성장이 지속되기 위한 길이다. ■

# 알고 있습니까?

## 지도력에 대한 조언

위임을 배우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일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일을 나누고 그들에게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주며 그들을 믿으셨습니다. 구주의

모범에 따라 여러분의 반이나 정원회에 일을 위임할 때, 그 일은 수행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능력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지명을 알고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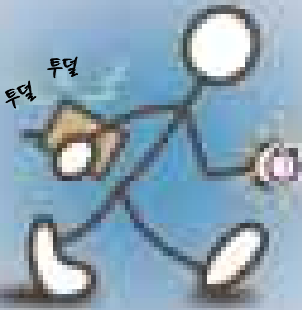
- 누군가에게 지명을 받아들이도록 부탁한다.
-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
- 완수해야 할 날짜를 정해 준다.
- 지명을 완수한 후, 보고하게 한다.

## 경전 연구: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여러분은 경전 달인입니까? 아니면 문외한입니까? 이 퀴즈는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끝에 있는 해답을 보고 점수를 매겨 보세요.

### 1. 경전을 막 읽으려는 참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ㄱ. 적어도 10분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인한다.



- ㄷ. 니파이전서를 다시 읽을 때 레이먼과 레뮤엘이 여전히 불평할지 궁금해 한다.

- ㄴ. 영을 통해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한다.

### 2. 몰몬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 ㄱ.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 둔다. 경전 일지가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 ㄷ. 그와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도록 경전을 더욱 자주 읽는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 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것을 기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다. 피곤하고 해야 할 숙제가 태산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 ㄱ.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까지 숙제를 한다.



- ㄷ. 낮잠을 자고,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경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읽었다.

- ㄴ.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아침에 있을 세미나리 퀴즈를 위해 경전 익히기를 공부한다.

### 4. 누군가가 여러분의 경전을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 ㄱ. 와, 어쩌서 이 페이지들이 여태껏 서로 붙어 있니?



- ㄴ. 야, 책갈피가 모사이어서에 꽂혀 있네. 세미나리에서는 엘마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니?

- ㄷ. 밑줄이 많이 쳐져 있네. 표지도 헤어졌고. 경전을 많이 읽나 보구나.

### 결과를 보세요!

1. ㄱ=2 ㄴ=3 ㄷ=1  
2. ㄱ=3 ㄴ=2 ㄷ=1  
3. ㄱ=1 ㄴ=2 ㄷ=3  
4. ㄱ=1 ㄴ=2 ㄷ=3

### 1~4점: 경전에 굶주려 있음

적어도 여러분은 경전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전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시간입니다. 경전에는 읽을 것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 5~8점: 경전 탐구자

여러분은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군요.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경전을 깊이 공부할 시간을 따로 정해 두세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9~12점: 경전 달인

경전에서 배울 것은 참으로 많으며, 여러분은 출발을 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세요. "경전 달인"이 되기 위해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잊지 마세요.

## 마음의 상태

라켈 페드라사 데 브로시오

**나**는 새로운 직장에서 갖 일을 시작했고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고 나는 내 나이 또래의 한 젊은 여성을 훈련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마리아(가명)라고 하는 내 새로운 직장 동료는 분명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유행에 따라 짧은 스커트와 어두운 화장, 과감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으며, 또한 담배를 피우는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다.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나는 함께 일을 잘 해 나갔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웠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그녀는 내게 “라켈, 춤추러 가 본 적 있어?”라고 물었다. 나는 교회 무도회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무슨 교회냐고 물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며 교회 회원들은 종종 몰몬이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는 전에 몰몬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교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나는 그녀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고 그녀는 기쁘게 받았다.

얼마 후 나는 그녀에게 집 근처 교회에 가 볼 것을 권했다. 그녀가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꽤 놀랐다. 교회에 함께 가기 위해 다음 일요일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요일이 다가왔고, 내가 탄 기차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역에 다가가던 순간 나는 창문을 내다보며 내가 직장에서 알던 마리아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녀 대신, 놀랍게도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후기 성도 청년들에게 바랄 법한 머리와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로 마리아였다!

사실 나는 그녀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의심했었고, 또한 복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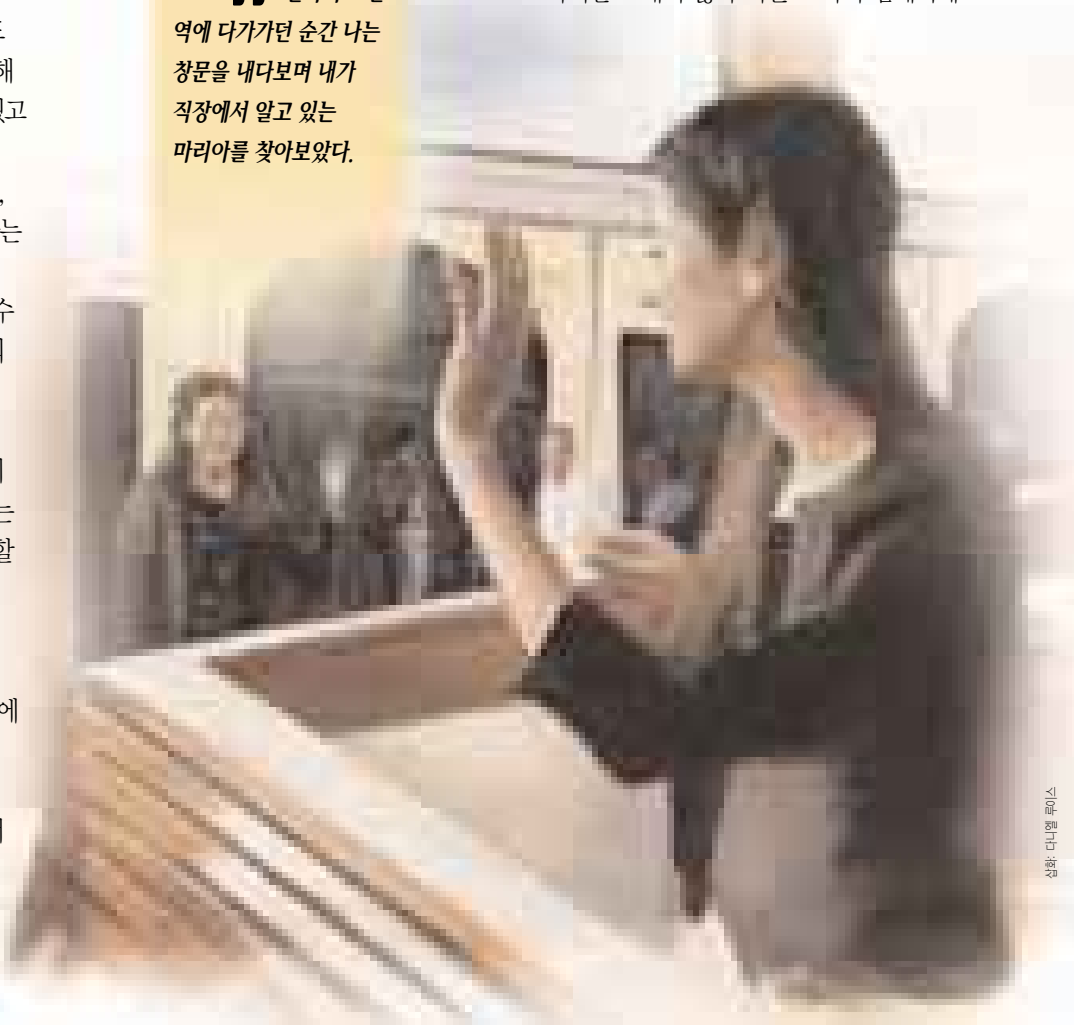
**내**가 탄 기차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역에 다가가던 순간 나는  
창문을 내다보며 내가  
직장에서 알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보았다.

과연 그녀의 삶에 내적 또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15분 정도 걸어서 교회로 갔다. 우리는 먼저 상호부조회에 참석했고, 마리아는 질문에 답하며 교사가 우리에게 부탁한 일에 모두 참여하고 싶어했다. 주일학교와 성찬식에도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자매 선교사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그녀를 토론에 초대했다. 마리아는 기꺼이 응했다.

얼마 후 그녀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는 그녀의 침례식에





# 이

메일에  
첨부된 것은  
내가

세사레에게 준  
몰몬경에서 그가 스캔한  
페이지였다.

초대 받았다. 안타깝게도 난  
그때 갈 수 없었고, 그녀와 나는  
다시 연락이 끊겼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선교부에서 9개월간 봉사한 후에 나는  
리아호나 지역 소식란에서 마리아가  
아르헨티아 레지스텐시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뻐서 뛰기 시작했고 즉시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답장에서 자신의 선교 사업  
준비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부모는  
교회에 들어가려는 그녀의 소망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교회와  
종교교육원에 다녔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마리아와  
나는 그 뒤로 다시 만났다. 그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녀들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 그녀는  
복음을 실천하며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늘날 그녀의 외모는 그녀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신은 알지  
못하겠지만 내게 특별한 추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복음은 영원하다는 위대한 복음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메시지를 거절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간증을 나누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떠오른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녀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

## 늦은 수확

라이언 더블류 존스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책상에  
앉아 주말 동안 쌓인 산더미  
같은 이메일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항상 컴퓨터 바이러스를 의심해  
왔으므로 낯선 사람이 보낸 이메일 한  
개와 첨부 파일을 지워 버릴 뻔했다.  
그러나 내가 손가락을 마우스 버튼 위에  
올려놓고 클릭하려고 하는 순간 영이  
나에게 그 메시지를 열어 보라고  
속삭였다.

이메일은 “안녕하세요, 라이언 존스  
장로님”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장로님은  
이제 50세쯤 되실 것이고 저는  
37세입니다. 제겐 장로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45세였고  
나를 “장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나는 장로라고 불린 적이 없었다.  
이메일을 쓴 사람은 내가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선교 사업 때 가졌던 영을  
계속 지니고 있는지 물었다. 이는 내  
호기심을 더욱 돋우었다.

“장로님과 장로님의 동반자가 이탈리아  
타란토에서 제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어요. 그때가  
1975년이었지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나는 머리를 굴렸다.  
“장로님은 아마 제게 침례를 주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노,  
장로님이 침례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글쓴이는 우리가 그의 부모님께 침례  
허락을 받기 위해 갔을 때 그와 그의

동생이 선교사들을 그들의 아파트 계단에 세워 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며 창피스러웠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계속 교회에 나왔지만 침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그만두어야 했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며 제가 배운 원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1975년에서 1977년까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타란토는 내 첫 번째 지역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이메일에 적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22세 때 이탈리아 북부에서 군대에 징집되었다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그는 영적인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그 지역에서 선교사를 찾게 되었다. 그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그들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침례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전혀 없는데.”라고 생각했다. 그 장로들은 무척 놀랐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침례를 받았고 후에 독일 프리드리히스도르프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로, 몇 년 전에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장로님께서 이메일에 답신을 보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신을 보내신다면 제 인생에 대해, 그리고 제가 장로님의 선교 사업으로 인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작고 선한 한 가지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이메일에 “세사레 쿠아린토”라고 서명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내 이메일 주소를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웹사이트에서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타란토에서 12세 소년을 가르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된 물몬경 한 권에서 스캔 받은 한 페이지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1975년 9월 14일에 이탈리아어로 내가 직접 쓴 글이었다.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세사레 형제님,  
형제님이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선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며 이 진리를 형제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구,  
라이언 존스 장로”

갑자기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 내가 썼던 글을 보자 그 기억이 되살아나며 타란토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임대 건물이 생생히 기억에 떠올랐다. 우리는 그 건물에서 어린 세사레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내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직전에 물몬경 한 권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 상황을 회상하며 세사레의 이메일을 읽는 동안 나는 기쁨에 넘쳤다.

나의 선교 사업은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침례 주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흐른 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내 마음속에 다음의 경전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15) ■

## 독특한 숫자 조합

프랜시스 데이비스

2001년 6월, 금요일 오후 5시30분이었다.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집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화는 당황한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내와 세 딸들은 자전거를 타고 차가운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자전거에 채워 둔 번호 맞춤형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물쇠 번호는 3690이었지만 그 번호로는 열 수가 없었다. 자전거는 가게 바깥에 있는 철책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나는 미니밴에 뛰어올라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나 역시 자물쇠를 열 수는 없었다. 나는 아내와 딸들을 태우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부 회장단 제1보좌가 톱을 수리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전거 자물쇠 대부분은 톱과 볼트 절단기로 자를 수 없는 단단한 강철로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자물쇠를 자르려는 시도는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전기톱과 연장 케이블선이 들어 있는 상자를 찾아냈다. 나는 가게에 전화해서 전기톱을 사용하기 위해 그곳 전기를 써도 되는지 물었고, 그들은 쾌히 승낙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7시 45분이었다. 그 가게는 8시에 문을 닫는다. 나는 마음이 급했고 아내처럼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밤새도록 그곳에 두면 틀림없이 파괴의 표적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당시 운전은 하지 못했던 나의 아내는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데 자전거를 사용했다.

가게에 도착하여 전기톱이 든 단단한 플라스틱 상자를 꺼내 열어 보니 실수로 무선 드릴을 가져왔음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모두 검은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 있었다. 시간은 7시 55분이었고 집에 갔다가 가게 문이 닫히기 전까지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자물쇠를 두 부분으로 분리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다해 잡아당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으며 종업원들은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다.

나는 미니밴에 앉아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동차 핸들을 꺾었다. 그때 내

## 다 시그 자물쇠를 시도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고 나는 걱정이  
되었다.

“마음의 귀”에 내 딸이 부르는 찬송가 “오늘 네 집 떠나올 때”(찬송가 76장)가 들렸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가장 간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 기도하기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심지어 드릴과 톱을 잘못 가져온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시도해 보라는 속삭임을 들었다. 차에서 내려 자물쇠 숫자를 3690에 다시 맞추려고 했을 때 2591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숫자를 2591에 맞추자 자물쇠는 내 손 안에서 열렸다.

나의 기도가 그렇게 분명히, 그리고 빨리 응답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자전거를 미니밴 뒤에 실으면서 흐르는 눈물이 얼굴을 적셨다. 나는 급히 집으로 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나중에 자물쇠를 3690에 맞추어 보니 예상했던 대로 실린더 안쪽에 있는 두 부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이 사이의 틈이 정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다음 2591로 시도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자물쇠의 회전판이 망가져 있었다. 돌릴 때마다 다른 번호가 자물쇠를 열게 되어 있었다. 금요일 저녁 내가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수천 개의 조합을 생각해 볼 때 하늘만이 내가 그 독특한 숫자 조합을 알아내도록 도울 수 있었다. 내가 해야 했던 것은 단지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었다. ■



인생의 좌우명

저는 2002년 7월호 *리아호나*에 엘 톰 페리 장로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를 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루과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사는 저의 고통과 유혹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감동시켰고,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리아호나* 덕분에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의 저의 영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루이스 까르바할 아르세, 칠레

현대의 기적

저는 2005년 12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클램 차우더 이야기”를 읽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 기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현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이린 태니그라, 필리핀

항상 감사할 내용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리아호나* 안에는 항상 감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 호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2005년도 처음 3개월 간의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월호의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2월호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월호의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큰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역사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세계적인 사건들을 비교해 놓은 이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에서 남편을 위한 무언가를 찾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올가 크리프코, 우크라이나

진리의 말씀

이 훌륭한 잡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이 제게 *리아호나*를 한 부 주었으며, 그 안에 들어 있는 지혜로운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셀리오 보르바, 브라질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저는 항상 *리아호나*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이므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사들은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젠미 마자리에고스, 과테말라

다음 호 예고

다음 호 *리아호나*는 특히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10월호에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회원들을 돕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 “양날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의 말씀에 대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 “다른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아직 생각해 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오래된 회원이라면, 복음의 기본 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회원들인 친구나 가족을 돕는 데 사용할 기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물론 지역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독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은 매 호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 친구들



# 진리는 널리 퍼질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에게  
악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업에 대해 낙관적[긍정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그분의 사업을 지상에 세우셨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많은 비극적인 문제가 세상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저는 옳은 것이 승리하고 진리가 널리 퍼질 것이라는 단순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땅에 짓밟힌 진리가 다시 솟아 오를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떠날 때 저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짙은 글이 적힌 카드를 건네 주셨습니다. 그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는 것이었습니다.

악과 억압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려 한다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 하늘에 계신 하나님”(다니엘 2:28)의 신뢰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는 우리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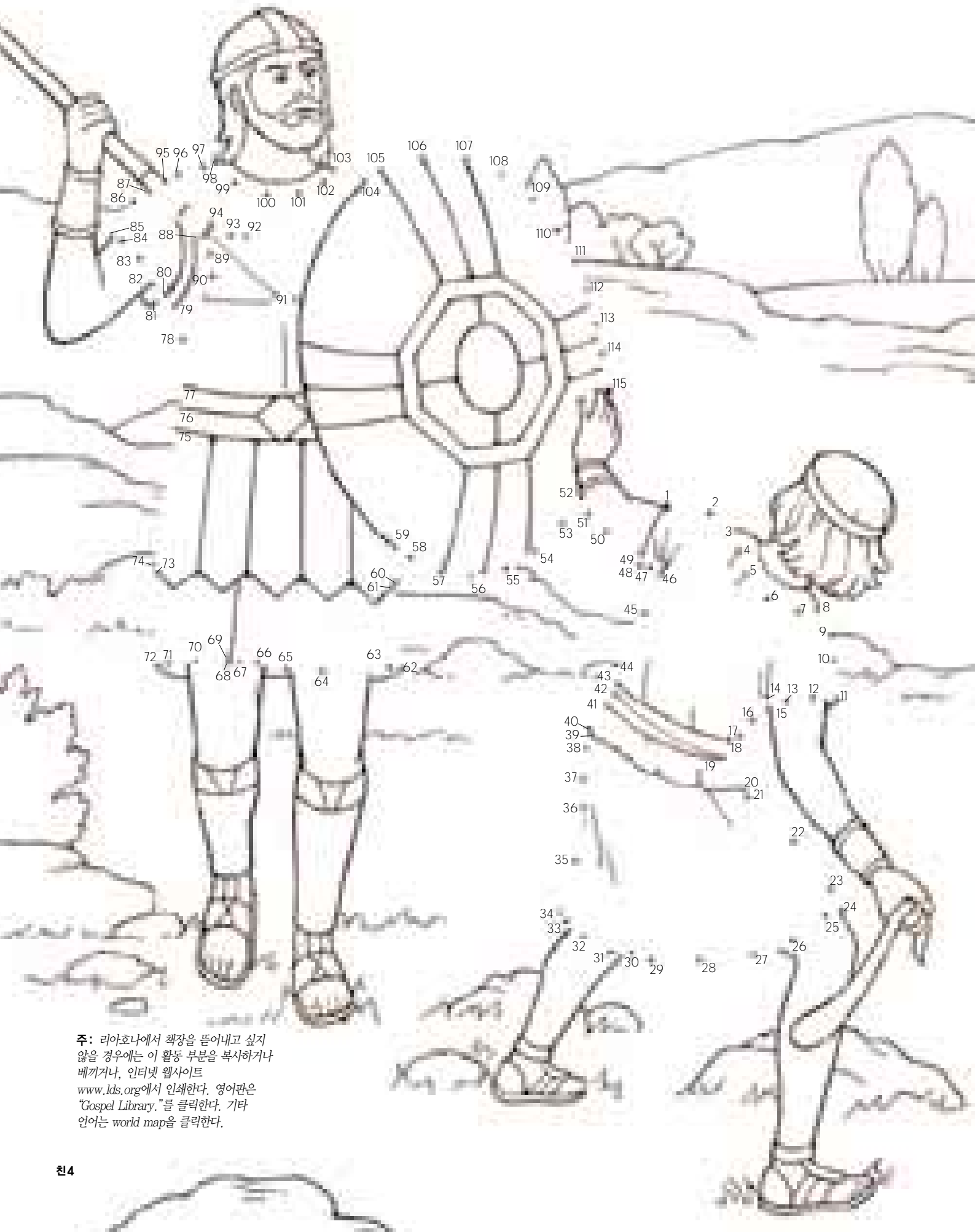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희생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요구하며,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할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비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숭고한 목적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데후서 1:7~8)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이 성구를 붙여 두기를 바랍니다. 이 성구는 우리에게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할 수 있는 신앙을 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상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업이 그분들의 거룩한 사업임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께 위대한 운명을 향해 이 사업을 전진시켜 나갈 힘과 신앙과 헌신을 갖도록 호소하며, 또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1996년 5월호, 3~6쪽에서 발췌.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풀어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껴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음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시편 27:1)

린다 매글비와 엘리자베스 리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전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에 맞서 싸울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나오라고 도전을 걸어 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은 자신이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용기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갔을 때, 골리앗은 어리다는 이유로 다윗을 놀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사무엘상 17:45)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그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골리앗” 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 마약, 부적절한 텔레비전 방송 및 음악, 심지어 게으름과 이기심 등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내로 가서 그의 적을 맞출 다섯 개의 매끄러운 돌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 다윗이 시내에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어떤 돌을 고르겠습니까?” 몬슨 회장님은 용기, 노력, 겸손, 기도, 그리고 임무에 대한 사랑이란 돌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Meeting Your Goliath,” *Ensign*, 1987년 1월호, 2~5쪽)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용기를 나타내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노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겸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침례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다섯 가지 돌을 활용하고 그 밖에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 다윗과 골리앗 점선 잇기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이 되도록 점을 연결한다. 그림에 색칠한 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둔다. 다섯 개의 돌은 여러분의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상기시켜 줄 것이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성인 한 명을 초대하여 모사이야서 24장 8~15절에 있는 엘마의 백성들 중 한 명을 연기하게 한다. 그에게 배낭을 한 개 가져오게 하고 이야기를 다시 들려 주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오늘날 어린이들이 부딪치는 고난이나 어려움, 예를 들면 정숙하지 못한 복장, 부적절한 매체 등을 한 개씩 적게 한다. (더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종이에 작은 돌맹이를 써서 배낭에 넣게 한다. 몇몇 어린이들에게 배낭을 전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고난을 덜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안이 나올 때마다 돌을 몇 개 꺼낸다. 배낭을 다시 돌린다. 구주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2.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승인한 형제 두 명을 초대하고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해 오도록 부탁한다. (1)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배를 인도하는 리아호나 이야기. (니파이전서 18:8~22 참조) (2) 리하이의 꿈과 백성들을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 이야기. (니파이전서 8장 참조) 어린이들에게 백성들이 신앙을 보이고 인도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묻는다. 우리 시대의 리아호나와 쇠막대는 무엇인가? 엘마서 37장 44절과 니파이전서 11장 25절을 읽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가? 어린이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음악 힌트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각 노래의 처음 몇 소절을 들려주고,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그 메시지를 알아맞히게 한다.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말해 준다. 선지자, 성신 및 경전에 대한 음악을 들려준다. 우리도 오늘날 인도받기 위해 니파이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해야 함을 지적한다. ●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영감 받은 선지자

월포드 우드럽 회장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교회의 많은 회원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월포드 회장은 특히 일부 농부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설탕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우드럽 회장은 교회가 사탕무를 키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를 지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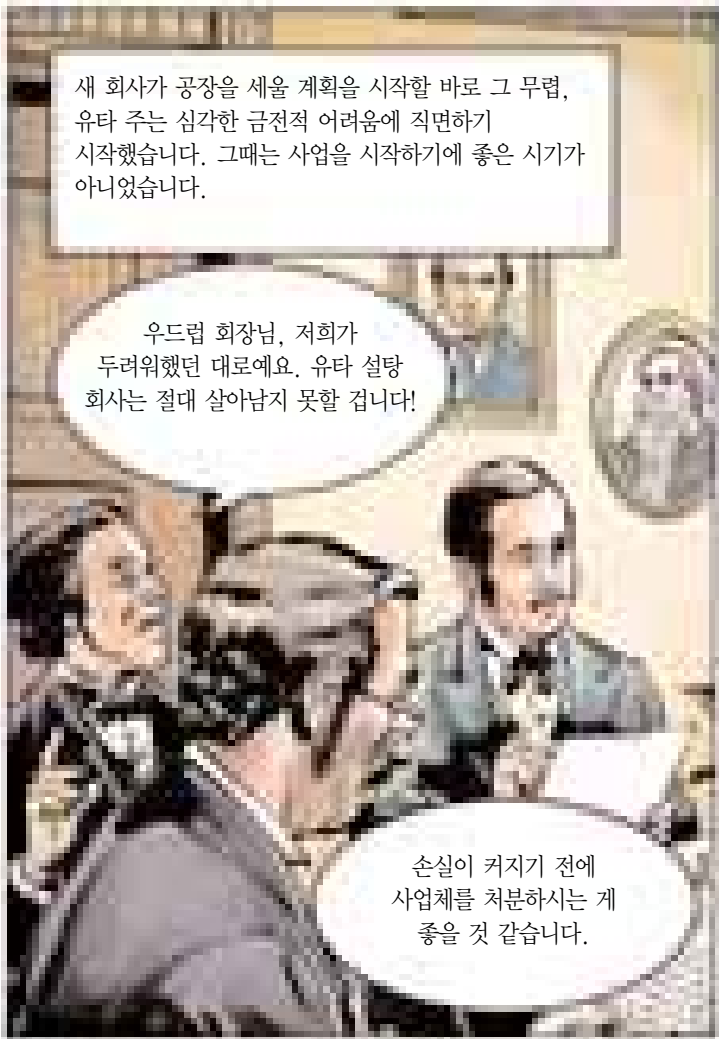
교회는 사탕무가 좋은 사업이 될지 알아야 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사탕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우드럽 회장은 다른 그룹에게 다시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그룹도 첫 번째 그룹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탕무 산업이 교회를 위해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는 신경쓰지 마시다. 나는 사탕무 산업을 시작하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새 회사가 공장을 세울 계획을 시작할 바로 그 무렵, 유타 주는 심각한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드럽 회장님, 저희가 두려워했던 대로예요. 유타 설탕 회사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손실이 커지기 전에 사업체를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드럽 회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탕무 사업을 하라는 영감을 주셨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두움이 생기고,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빛이 있음을 느낍니다.

교회가 파산한다 해도 우리는 공장을 세울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드럽 회장은 언제나 성신의 영감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설탕 회사는 결국 힘들게 노력하는 많은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메리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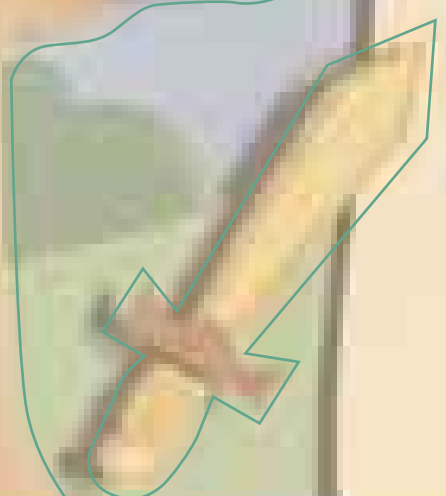
매리엄 조이스 그리섬



만드는 방법: 잡지에서 이 지면을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 다음, 굵은 선의 나무와 인물들을 오려낸다. 점선을 따라 각 인물에 달린 꼬리표를 뒤로 접어 테이프나 풀로 끝을 붙여 손가락 인형을

만든다. 이 인형들을 가정의 밤이나 초등학교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데 사용한다.

# 동상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 사랑의 유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칠십인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모니카  
워크스

**제**가 4살이던 제2차 세계 대전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책임을 맡겼으므로 저는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누나와 형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시간제 직원으로 일했고, 저도 좀 더 자란 후 시간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일했고, 어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자립하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청소년 때 저는 집에서 9시간 걸리는 좀 더 큰 도시의 어느 두부 가게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했고, 저녁에 고등 학교를 다녔으므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직장에 나가 두부를 만들어 거리에서 팔거나 여러 가게에 배달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리하게 일한 나머지 몹시 아프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항상 느끼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 계시요? 절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8일 후에 저는 병원을 떠날 수 있었고 회복 기간 동안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칠 후에 선교사들이 삼촌 댁에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에게 줄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님과 같은 한 소년이 형제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10분 정도 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게 조셉 스미스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감동 받았으며 진실로 영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메시지가 참된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도했고, 지금까지도 그날 어떻게 느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선교사들에게 거의 매일 다시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가르쳤던 것을 믿었으며 조셉 스미스가 거룩한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례 받기 전에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훌륭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된다. 남편을 잃은 마당에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들어가면 어머니를 떠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전 아무데도 안 가요.”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은 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제발 끊지 말고 다 설명할 때까지 들어 주세요.” 어머니는 제게 좀 더 공부한 후 시간을 들여 결정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가 바로 침례를 받아야 할 때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만약 중도에 그만 두려거든 아예 침례를 받지 마라. 하지만 끝까지 잘 다니겠다면 허락하마.” 그 말씀은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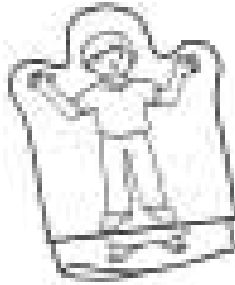
저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복된 복음을 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주와 그분의 은혜와 자비, 또한 그분께서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저의 깊은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브라질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부자는 뉴욕 주 팔마이라의 거룩한 숲으로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그곳에서 오직 산책과 이야기만 하며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의 개종 이야기를 아들과 나누었고,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이 사랑의 유산과 신앙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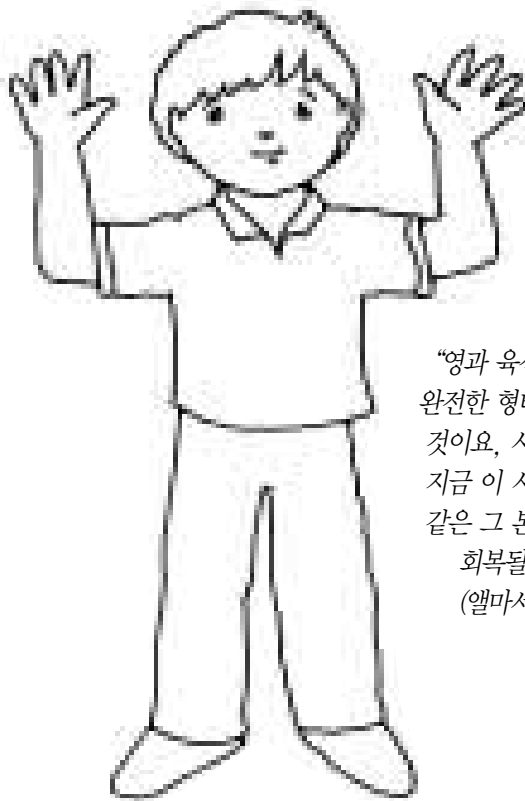
# 일요일 상자



만드는 방법: 어른에게 도움을 받아 작은 인형 본을 검은 윤곽대로 종이에 베껴 그린 후 잘라낸다. 이 본을 색깔 있는 접힌 천 조각 위에 올려놓고 베낀 후 잘라낸다. 하얀 천으로도 이와 같이 반복한다.

## 여러분은 영원합니다

진 맥멀린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의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다.”  
(앨마서 11:43)

색깔 있는 천 조각 위에는 바지를 입은 소년(혹은 소녀)의 모양을 그려서 색칠하고 하얀 천 위에는 긴 겹옷을 입은 소년을 그린다. 바지를 입은 소년의 그림을, 얼굴을 아래쪽으로 하여 색깔 있는 천 위에 올려놓고 1.5cm의 솔기를 사용하여 두 개의 조각을 바느질하거나 풀로 붙이되 아래 부분은 열린 채 둔다. 하얀 천으로도 이와 같이 바느질을 반복한다.

이 인형들을 일요일 상자에 넣어 두거나, 가정의 밤 시간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 가르칠 때 사용한다. 하얀 인형은 전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영을 나타낸다. 출생 시 육신을 받는 영을 나타내기 위해 영을 상징하는 인형 위로 색깔 있는 천으로 된 인형을 씌운다. 사망 시에 육신과 영은 다시 분리된다. 영을 상징하는 인형에서 색깔 있는 천으로 된 인형을 벗겨 낸다.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계속 살아 있다. 부활할 때 육신과 영은 다시 영원토록 합쳐질 것이다. ●



#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이분에 대한 단서들을 읽은 다음 밑에서 답을 찾아 보세요.

**1** 그와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신앙과 사랑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2** 15살일 때 그는 라디오 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지역 방송국에서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라디오에서 농구 중계를 했습니다.

**3** 그는 고등학교에서 농구와 미식 축구를 했습니다.

**4** 그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준 자매는 여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지 2년 후, 그는 크리스틴 맥매인 자매와 재혼했습니다.

**5** 시카고에서 법대를 졸업한 후 그는 변호사와 교수로서 일했으며 이후 유타 주 대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6** 그의 생일은 8월 12일입니다.  
**7**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어머니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불행했으며 학교 생활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5학년 때 그의 교사였던 세이퍼 선생님이 그가 배우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을 때부터 변했습니다.

**8** 1971년에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그의 첫 아내인 준 자매는 그 부름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 지혜의 말씀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고 최고의 축복, 곧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사인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14~15쪽).

#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누가복음 6:22)

제니 레베카 리팅  
글쓴이의 가족 역사 이야기를 기초로 함

**칼**은 잠이 깨자 바로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평상시엔 어머니가 아침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며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칼은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조이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칼은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우물에서 떠온 물로 머리를 말쑥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께서 점심 식사를 담아 주신 우유통을 손에 들었습니다. 흙먼지 길을 따라 신발이 닳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교실 한 칸짜리 학교 건물에 도착한 칼은 조이의 옆 자리에 미끄러지듯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짙은 눈썹을 가진 엄격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 배운 것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칼은 입문서를 미리 연습하여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칼은 곧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아, 바, 바-네, 베,

바-이, 비, 바-아, 보, 바-아, 부.”

점심 시간에 칼과 조이는 학교 옆에 흐르는 시냇가에서 점심을 먹고 교장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종을 칠 때까지 다른 소년들과 놀았습니다. 모든 소년 소녀들이 자리에 앉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 두 명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칼 리팅, 그리고 조셉 호글랜드, 앞으로 나오렴.”

칼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후 수업을 연습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면 어찌지요? 그러나 그와 조이가 교실 앞으로 나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는 단지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몰몬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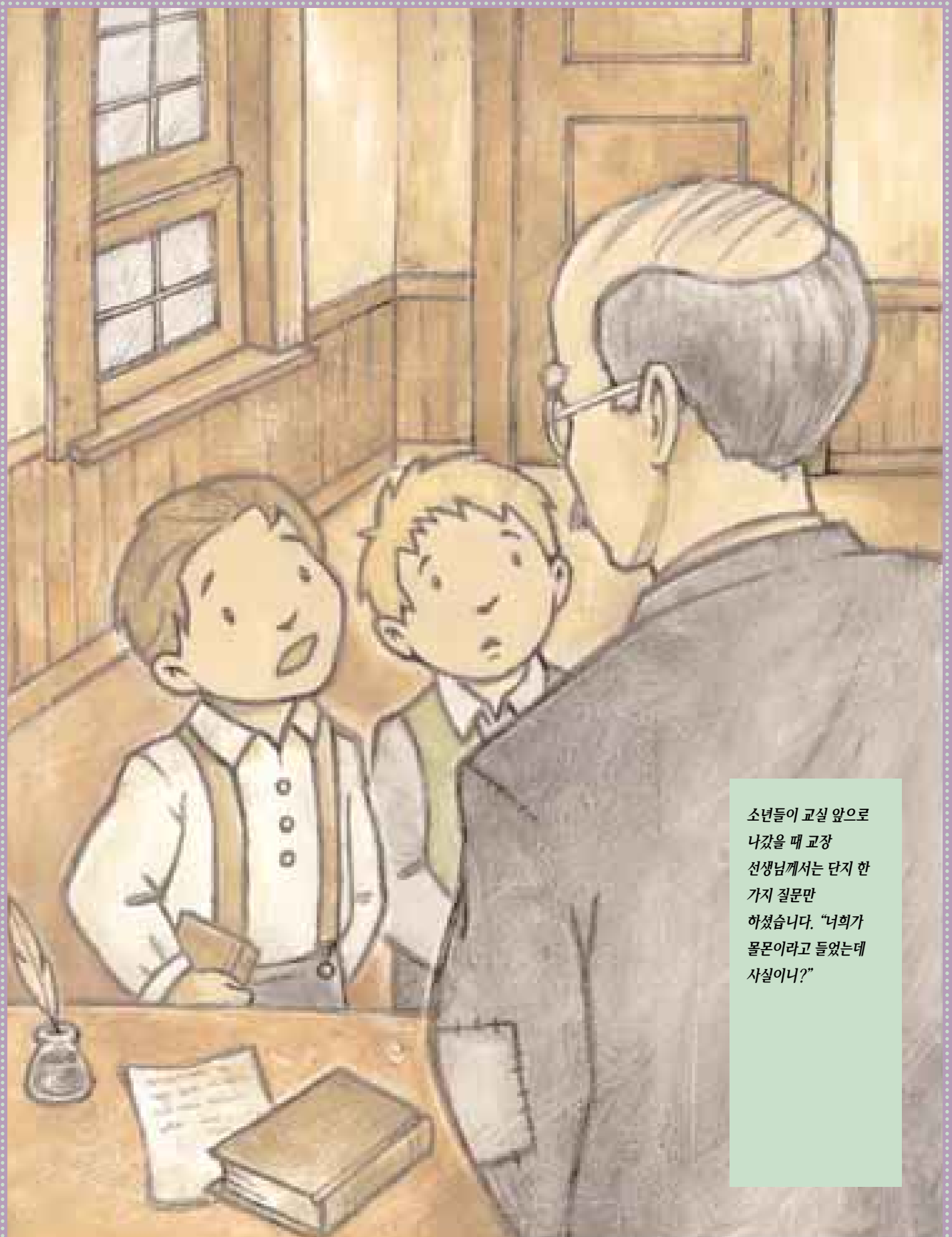
칼은 입이 마르고 무릎이 떨렸지만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조이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집에 가야겠다.

몰몬들은 우리 학교에 올 수 없다.”

칼은 외투와 우유통을 집어 들면서 눈물을 참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는 조이와 함께 흙먼지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들이 교실 앞으로  
나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서는 단지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몰몬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 스웨덴으로의 선교 사업

칼 프레데릭 리팅은 1880년 가족과 함께 유타주로 이주했습니다. 13년 후, 그는 선교사로서 스웨덴에 돌아가 그의 옛 친구인 조이를 만났고, 조이는 당시 호글랜드 장로라 불렸습니다.

칼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했던 공부는 그의 선교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칼이 체포되어 카톨릭교의 대주교와 그 주의 교회 주교 12명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교들 중 한 명은 “그가 성경을 외운 것이 분명하다”며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이는 곧 자기 집 방향의 길로 들어섰고 칼은 계속해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칼이 문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칼, 어떻게 된 거니? 학교에서 왜 이리 일찍 돌아온 거야? 어디 아파?”

“아니에요, 엄마.” 칼이 대답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저와 조이가 물몬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칼은 다시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런, 칼, 정말 안됐구나,” 어머니는 칼을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침례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 할 줄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거란다.”

“저도 알아요.” 칼은 어머니의 치맛속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 전 그들 집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셨던 안슨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네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어떻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라고 칼은 물었습니다.

안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마. 함께 성경책을 읽으면 돼. 한번 해 보겠니?”

“네, 정말 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열고 칼에게 의자 옆에 서라고 손짓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한복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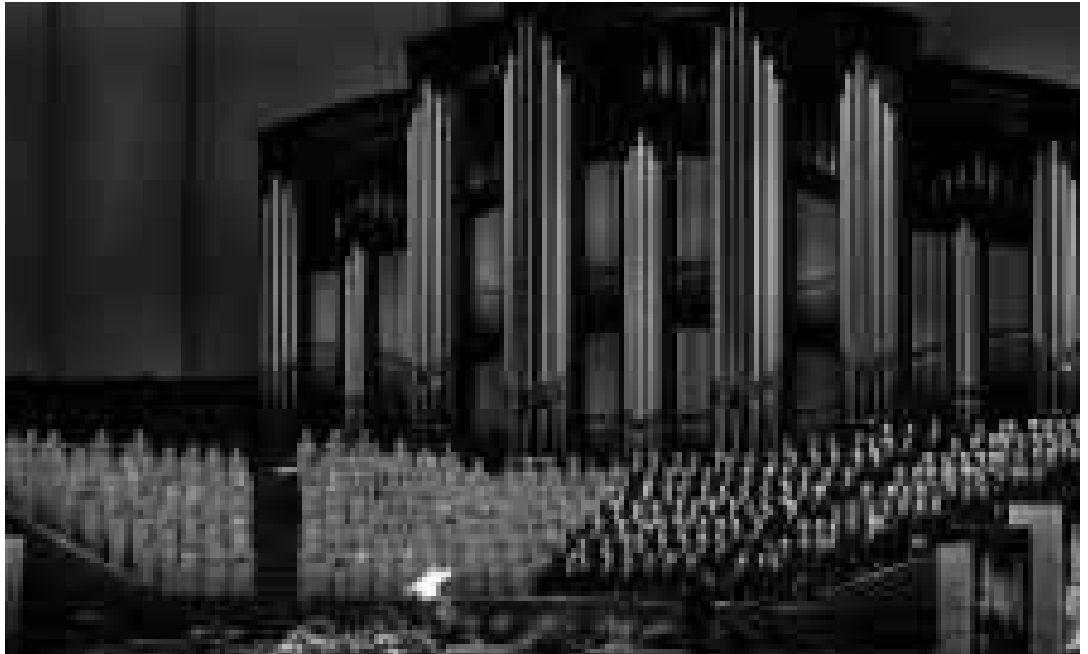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칼은 글자를 보면서 따라 읽었습니다. 결국, 정말로 훌륭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



“... 여러분은 많은 용기, 즉 또래 친구들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유혹을 물리치고, 비웃음과 따돌림에 대항하고, 진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10쪽.

## 음악과 진리의 말씀 방송 4,000회를 맞아 합창단이 예우를 받음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역사상 최장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4,000번째 방송에서 공연하고 있다.

### 브리트니 카포드, 교회 잡지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조지 더블류 부시 미 대통령은 세계 최장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4,000번째 방송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4,000번째 프로그램은 매주 있는 이 일요 방송이 달성한 또 한 가지 기록에 불과하지만, 이는 미국과 전세계 방송 사상 괄목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방송에서 공연하는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총 매니저 스콧 배릭 형제는 “우리는 이 방송이 계속적으로 번창하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음악을 사랑합니다. ... 이 음악은 오늘날 세상에 선을 가져다 주는 강한 힘입니다.”라고 말했다.

“A Legacy of Music through 4,000 Broadcasts”[4,000회 방송을 통한 음악의 유산]은 이 프로그램의 77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더듬어 보는 특별 회고 방송으로 부시 미 대

령의 녹음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배릭 형제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은 약 160년간의 역사 동안 10명의 미국 대통령을 위해 연주했으며, 다섯 번의 대통령 취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음악과 진리의 말씀 프로그램의 4,000번째 방송 돌파에 대해 합창단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연설 시에도 공연했다. 합창단이 백악관에서 가장 최근에 공연한 것은 2003년 11월 예술적 우수성을 기리는 국가 최고 영예인, “National Medal of Arts”[국제 예술 메달]을 받았을 때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타 주지사 존 헨츠맨 주니어로부터의 표창이 있었는데, 그는 4월 30일을 유타 주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날로 선포했다.

그러나 합창단의 이러한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배릭 형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음악과 진리의 말씀” 75주년 축하 말씀에서 핑클리 회장님의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은 합창단의 역량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4,000회는 핑클리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발전해 나아가는 단계에서 이루도록 부탁하신 또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청중들은 회고 방송으로 이어지는 핑클리 회장님의 간략한 말씀을 생방송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오린 해치 미 상원 의원, 헨츠맨 유타 주지사, 그리고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과 관련된 그 외의 사람들도 간략하게 말씀했다.

이 방송 후에 크레이그 제섭 형제의 지휘로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은 탬플 스퀘어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했다. 1929년 7월 15일에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은 음악과 진리의 말씀에 매주 출연하여 왔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오케스트라도 방송에 참여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수 년 동안 종교적, 애국적, 민속적, 뮤지컬 음악 등에 걸친 다양한 음악들과 함께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방송해 왔다.

합창단장인 맥 크리스틴슨 형제는 보

도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75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4,000번의 방송은 참으로 놀랄 만한 업적이며, 이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지속적인 우수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 새로운 성전 발표,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필리핀**의 유일한 성전이 마닐라에 세워진 지 22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질 예정이다. 교회는 4월에 이 섬나라 성도들이 세부에 새로운 성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성전은 필리핀 중부 및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지어질 것이며, 이제 이들은 더 이상 1984년에 지어진 마닐라 성전으로 장거리 여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필리핀 마닐라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레이 더블류 넬슨 회장은 교회 잡지에 이렇게 말했다. “세부 섬에 지어질 새로운 성전 발표에 관한 소식은 비사얀 섬과 민다나오 섬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근처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염원하는 중부 및 남부 지역 필리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보통으로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재산을 팔 정도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마닐라 성전에 가려는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2005년에는 한 그룹의 성도들이 평상형 트럭을 타고 나쁜 기상과 도로 형편 속에서 12시간을 여행하여 자신과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수행했다.

필리핀 청소년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성전에 참석하고 있다. 마닐라 성전은 이들을 수용

실제 방송은 오랫동안 CBS 방송국의 기자로 일해 온 찰스 오스굿 형제에 의해 진행되었고 KSL TV방송 5번 채널에서 생방송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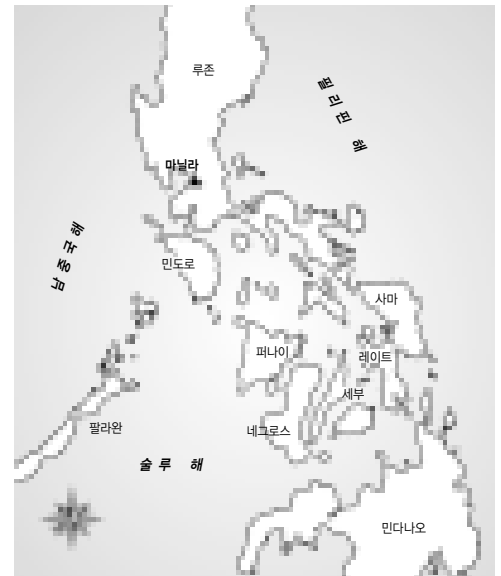
하기 위해 매우 바쁜 스케줄을 운영해 왔다.

마닐라 성전의 매이트론인 클레아 넬슨 자매는 최근에 전기와 수도 시설이 없는 비사얀의 먼 시골 지역에서 6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마닐라 성전에 오기 위해 희생을 치렀다고 교회 잡지에 말했다.

넬슨 자매는 “매우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조직한 봉사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하얀 셔츠와 넥타이 및 아름다운 주일 복장을 갖추고 성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 청소년들은 2000명 이상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을 수행했다.

한 지역 신권 지도자는 죽은 자를 위한



세부 섬에 세워질 필리핀의 두 번째 성전이 발표되었다.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가는 청소년들의 태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지역 칠십인 중 한 명인 마이클 존 유테 장로는 “이러한 일은 그들이 십대 청소년으로서 겪는 많은 도전 과제들과 어려움을 대할 때 주님과과의 서약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은 1898년 유타 주로부터 출발 전, 선교사로서 성별된 두 명의 후기 성도 군인들이 필리핀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되었다. 선교 사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61년에는 교회가 필리핀에 공식 등록되었다.

마닐라와 세부 시는 필리핀 최초의 선교부이다. 마닐라 성전이 건축될 당시 교회 회원 수는 7만 6천명이었다. 현재 필리핀 교회 회원 수는 회중이 천 이상에 집회에 520,000명 이상이며 회중은 천 단위를 넘어선다. 세부 성전은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성전 중 132번째로 발표된 성전이다. ■

가을의 청남 오픈 하우스와 워크숍에서 본부 청남 회장단은 청남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약속된 축복을 얻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부모와 정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남들이 이루어 낸 발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는 청남들과 지도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달성할 기회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러시아 동쪽 해안의 블라디보스톡에 갔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노변의 모임이 시작될 무렵 저는 단상에 앉아서 둘째 줄에 있는 한 청남

이 제사들을 위한 지

침서인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몰두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솔트레이크로부터 17시간대나 떨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니.” 말씀을 위해 일어나서 저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기어예요.”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몇 살이죠?”

“열일곱 살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책을 읽는 걸 봤는데, 무슨 책을 읽고 있었지요?”

##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기회의 창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본부 청남 회장

제일회장단은 몇 년 전에 교회의 청남들을 위한 새로운 달성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합당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함을 통해 멜기세덱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 전임 선교 사업, 결혼,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 9월 28일에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남들이 모범 대원 표창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모든 청녀들은 청녀 표창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그들은 성전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가족과 주

님을 위해 일

생 동안 봉

사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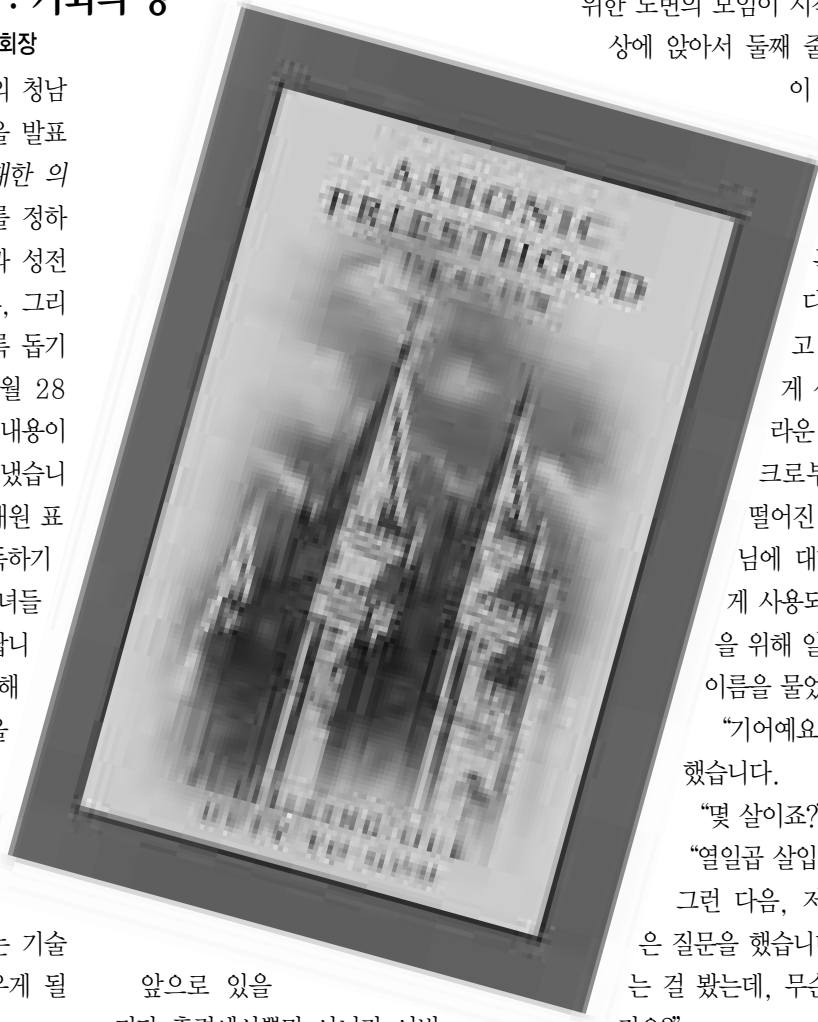
준비시켜 주는 기술

과 성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기타 훈련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그는 곧바로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어디서 구했나요?”

“모임 바로 전에 홀에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어가 말하자, 즉각 디미트리라고 하는, 바로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방을 나가 재빨리 자신의 책을 받아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전할 기회에 대해 참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정원회, 그리고 가족에게 맞추어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집사, 교사, 제사에게 수여되는 상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 가정에서 달성될 수 있고, 청년 부모들이 점검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청년과 그 부모들이 프로그램과 지침서에 익숙해져야 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 신권 지도자들의 방문

제 친구 댄은 11살이며, 곧 집사로서 성임될 것입니다. 집사가 되기 얼마 전에 댄은 와드 집사 정원회 회장단과 감독단 일원 또는 집사 정원회 고문으로부터 정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댄과 그의 부모님에게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 성임을 받고 나면 할 수 있게 되는 모든 훌륭한 일, 즉 성찬 전달, 금식 헌금 접수, 봉사 활동 참여 및 신권회와 청년 활동 참석 등과 같은 일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침례 요한이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나의 동역자 된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은 가정의 밤이나 일요 활동에 적합하다.

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1)”라고 말했을 때 회복된 아론 신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축복인지에 대해 댄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사 지침서인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를 댄에게 가져다 주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무엇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타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집사에게 제일회장단이 약속하신 다음의 글을 댄이 읽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믿고 계시며 여러분이 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성취하고 가슴 설레는 미래의 도전을 위해 준비할 때 여러분은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sup>1</sup>

### 가정에서

많은 요구 사항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고 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회 고문은 댄의 부모님이 그 조건에 익숙해질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댄의 부모님은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댄을 돕는 그들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많은 조건(특별히 “가족 활동” 및 “영적인 발전” 항목에서)이 가정의 밤이나 일요일에 적합하며, 또한 이것은 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댄의 부모님은 댄이 집사로 있는 동안 네 번의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요구 사항 중의 하나인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댄이 공과를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치는지 배우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댄이(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 모두가) 신앙개조를 복습하고 다시 암기할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댄 또한 가족을 위해 최소한 두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4대 계보를 작성하고, 봉사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을 발전시키고, 소책자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고 부모님

이나 신권 지도자와 그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댄의 부모님은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면서 댄이 그 요구 사항들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돕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댄의 아버지가 아들과의 접견을 통해 댄의 집사 증서를 향한 발전을 검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접견을 하는 동안 댄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네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지? 이 일이 어떻게 성전에 대해 너를 준비시켜 주니? 물론경을 읽으면서 너의 간증이 얼마나 커졌는지 말해 주겠니? 하나님에 대한 의무 목표 달성을 위한 너의 노력이 가족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아들이 되게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그의 목표와 꿈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좋은 기회가 된다.)

### 정원회에서

댄의 정원회 회장 또한 몇몇 요구 사항들이 정원회에서 수행할 일들이며 댄이 이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정원회 활동이 계획될 것이라고 댄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회장은 또한 주기적으로 댄과 함께 그의 발전을 검토하고, 정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댄의 부모님과 점검할 수 있으며, 정원회 회장단과 고문들도 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기 위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상호 향상 모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감독단 또한 정기적으로 댄의 발전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된 접견을 할 수 있으며, 와드나 지부의 성인 한 명, 가능

### 가정 복음 교사에게

아론 신권 연령의 청남이 가족 내의 유일한 교회 회원일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경우나 부모가 혼자인 가정의 경우, 복음 교사가 그 청남을 도와 신권 직분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의 요구 사항들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하다면 청남 회장단 서기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각 청남의 발전을 점검하는 일을 돕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서 및 진보

집사 증서를 위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달성한 뒤에 댄은 감독과 접견하여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집사의 소책자 끝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페이지에 서명을 받은 다음, 집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댄이 교사가 되기 바로 전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때 다시 정원회 지도자에게서 그와 같은 방문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지침서(그 후엔 제사 지침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집사, 교사, 제사 증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메달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댄의 노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상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 발전일 것입니다. 개인 발전은 댄으로 하여금 성전 의식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 잘 준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론 신권을 가진 청남의 부모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 부모님을 위한 점검표

1.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침서 [집사용]와 함께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구한다. 아직 지침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 또는 아들의 아론 신권 고문에게 이 기사를 보여 주고 원하는 시간에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이 지침서들은 지역 배부 센터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www.ldscatalog.com](http://www.ldscatalog.com)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 적합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증서를 위한 각각의 요구 사항을 배운다.

3. 아들과 함께 그가 완수한 요구 사항을 검토해 보고 아직 완수해야 할 사항을 선정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청남들의 경우, 그들의 필요 사항에 맞추기 위해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스스로 정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4. 아들이 각 목표에 따라 노력하고 완수할 것을 계획하도록 돕는다. 여러분과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또한 각각의 목표가 어떻게 가족을 강화시키며 여러분의 아들이 효과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지 토론할 수 있다.

5. 시간을 정해 놓고 발전 상황을 점검한다. 아들에게 안전한 장소에 지침서를 보관하게 한다. 청남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 칭찬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관대하고 구체적이며 진심으로 칭찬하도록 한다.

6. 위의 3~5까지 단계를 반복한다. 요구 사항들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들과 함께하며 즐긴다.

연령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침서를 신중히 살펴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과 목적을 토론하고 그에게 도전 과제가 될 적합한 목표들을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침서에 열거되어 있는 요구 사항들을 개인의 환경, 관심사 및 청남의 필요 사항에 따라, 부모와 아론 신권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회의 창

오늘날 청남들이 끊임없이 마주치는 문제들, 즉 그들을 약화시키고 타락하도록 이끄는 사탄의 시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달성을 통해 오는 축복이 지

금보다 더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경전을 열심히 읽고, 신앙개조를 외우고, 그 밖의 요구 사항들을 수행해 나가는 청남은 어느 것이 선이며, 올바른 것이며, 진리인가에 더 초점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을 피하기 위해 더욱 잘 준비될 것입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상호 향상 모임에서 우리는 그 해의 주제였던 한 성구를 배웠습니다.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엘마서 34:32)

청남들을 위한 기회의 창은 그리 오래 열려 있지 않으며 재빨리 지나갑니다. 이 성구가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일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청남들에게 목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론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은 선을 위한 훌륭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sup>2</sup>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아론 신권 청남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청남들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

### 주

1.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001년), 5쪽.
2.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4쪽.

##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 개척자 음악회

애비 올슨, 교회 잡지

2006년 7월21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컨퍼런스 센터 및 전세계 곳곳에 모였다. 모인 이유는 후기 성도 개척단이 1847년 7월 24일에 솔트레이크로 들어간 지 159년이 되는 것과, 첫 손수레 부대가 계곡에 들어간 지 15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탬플 스퀘어의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축하 공연을 보기 위해서이다. 이 방송은 7월 23일에 재방송되었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 감독인 크레이그 제섭 형제는 교회 잡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후일의 개척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돕도록

제일회장단이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념 음악회는 우리 앞에 갔던 분들뿐만 아니라 아울러 오늘날 교회에서 개척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개척자 정신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개척자 역할을 하는 한 가족이 음악회에 초대되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브래트 가족 합창단은 미주리 주 브랜슨 PBS 텔레비전에서 매일 아침 방영하는 버라이어티 쇼에 나와서 노래하는 후기 성도 가족이다.

개척자의 날 음악회에서 브래트 가족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2월 4일, 그 가족은 음악과 진리의 말씀 방송에 특별 출연자로 나왔으며 그 뒤에 합창단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공연했다.

툼 브래트 형제는 합창단과의 공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와 같은 주님의 합창단과 함께한 경험은 우리의 음악에 다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 음악을 새롭고 탁월한 수준으로 들어 올리도록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개척자의 날 기념 음악회는 마지막 공연을 한 지 3년이 되었다. 2004년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음악과 진리의 말씀 75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2005년에는 95번째 생일을 맞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축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지난 개척자의 날 음악회에는 나부 성전 헌납식 음악과 개척자 유산과 관련된 찬송가가 포함되었다. 올해의 개척자의 날 음악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개척자 축하 기념 행사, the Days of '47 (1847년의 날들)의 공식 행사로 지정되었다.

생방송 및 이후 저장된 방송 음성 자료와 동영상이 [www.lds.org/broadcast](http://www.lds.org/broadcast)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음악회의 인터넷 음성 자료 파일은 다음의 17개 언어로 제공된다. 한국어, 광둥어, 나바호어, 라오스어, 마샬어, 몽, 베트남어, 북경어, 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아이티어, 영어, 캄보디아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및 폴란드어. 비디오 저장 파일은 영어, 미국 수화 및 스페인어로 나와 있다. ■

## 새로운 회원 돕기를 목표로 한 리아호나 10월 특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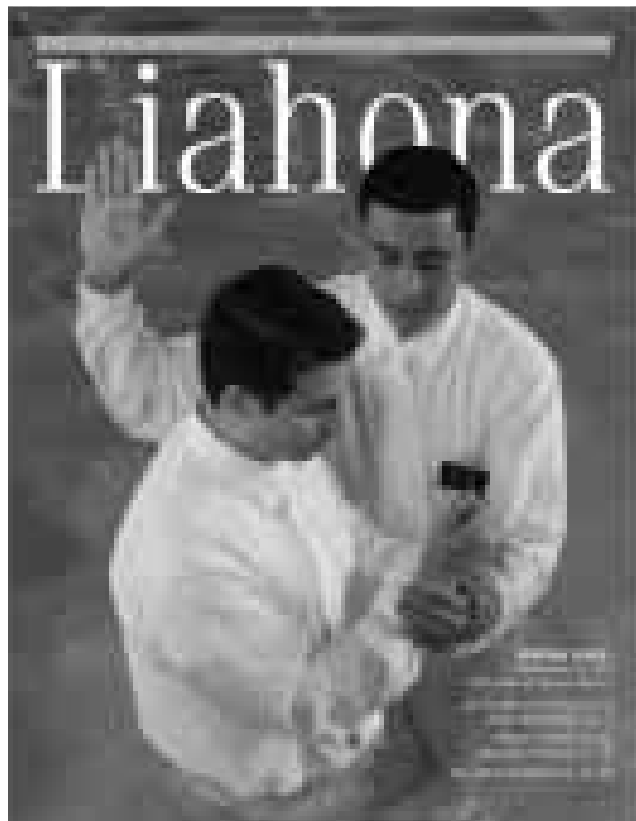
교회의 새로운 회원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10월에 중요한 추가 자료를 받게 된다. 리아호나 10월호는 교회에 들어오므로써 받는 축복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의 간증과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정보와 격려를 주며 최근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것이다.

새로운 회원과 오래된 회원 모두 10월호에서 일반적인 문제와 자주 거론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번 호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환영 인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모든 회원으로 하여금 알았으면 하는 내용, 새로운 전통을 배우고 옛 전통을 뒤로 하는 일, 가족의 일부만 회원인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일, 배운 것을 나누는 방법,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 등의 주제에 대한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10월호는 제일회장단 메시지, 방문 교육 메시지, 함께 나누는 시간 및 후기 성도의 소리를 포함한 잡지의 일반적인 기사를 모두 유지하는 가운데, 각 기사마다 새로운 회원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담게 된다. 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그들이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다. 다음 호에는 교회 잡지에 대한 소개와 그 잡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포함된다.

10월호 추가본을 원하는 회원들은 지역 배부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 2006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6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경전에서 얻는 용기와 위로”를 참조한다.

1. 복음 그림 패킷 517(스펜서 더블류 킴블)을 보여 주고, 킴블 회장이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위로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전을 읽었다고 설명한다. 킴블 회장은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읽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했다. 어린이들에게 경전을 찾아 니파이의 말씀을 읽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경전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를 주는 그 밖의 다른 약속들을 찾아 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 세 명에게 반원들 앞에서 다음 성구를 읽게 한다. 요한복음 14:26(성령), 교성 108:8(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해 주신다), 요한일서 2:25(영생). 어린이들에게 세 명의 어린이가 각각 성구를 읽을 때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킴블 회장님처럼 그들도 경전에서 위로와 용기를 찾을 수 있음을 간증한다.

경전에서 위로를 찾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성구, 로마서 15장 4절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낱말 스트립이나 칠판에 다음의 글을 적는다. “... 기록된 바는 ...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어린이들에게 이를 몇 번 암송하게 한다. 세 개의 마침표는 한 개 이상의 단어가 인용문에서 빠진 것을 뜻한다고 설명

한다. 먼저 단어의 뜻(일부 또는 전체)을 말해 준 뒤, 한 번에 몇 개의 단어만을 보태면서 성구를 가르친다. 마지막에 “성경의 위로”를 더한다.

2. “페르시아 제국” 지도(집회소 도서실에 있는 지도 912, 또한 [www.lds.org](http://www.lds.org)에 클릭하여, The Scriptures, “Study Helps: Bible Maps,” “7. The Persian Empire”를 찾아 인쇄할 수 있음)를 보여 준다.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큰 나라였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해 이 나라 면적을 어린이들이 잘 아는 것과 비교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페르시아 제국은 미대륙과 크기가 거의 같아요.” 수사(또는 수산) 도시에 별을 하나 붙인 다음, 별이 두 가지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1) 수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으며 (2) 에스더의 고향이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을 뜻한다. 에스더의 이름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한 그녀에게 적합한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야

기(에스터 4~5장 참조)를 할 때 어린이들이 귀 기울여 들도록 권유한다.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그녀를 위해 금식하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터 4:16)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에 맡긴 채 왕 앞에 감으로써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는지에 초점을 둔다. 어린이들에게 에스더가 그녀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묻는다.

어린이들에게 에스더처럼 용기를 가질 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에스더가 가졌던 것과 같은 용기를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나는 친구를 초등학교에 초대할 수 있어.” 라든가 “나는 적절하지 않은 텔레비전 쇼를 끌 수 있어”)와 할 수 있는 말(“나는 이 노래 가사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또는 “우리 야구 게임에 조이도 넣어 주자. 외로운 것 같아 보여”)을 번갈아 하도록 한다. ■



### 경전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으

“대형은 나의 영혼 나의 구원사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시편 27:1)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계속될 때, 다윗은 어떤 후자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윗에게 들은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1. 성경 말 줄을 사용하여 모세와 아론이 25장 9-15절을 읽는 동안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2.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될 때, 다윗은 어떤 후자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에게 들은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에게 들은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1. 성경 말 줄을 사용하여 모세와 아론이 25장 9-15절을 읽는 동안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2.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될 때, 다윗은 어떤 후자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에게 들은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1. 성경 말 줄을 사용하여 모세와 아론이 25장 9-15절을 읽는 동안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2.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될 때, 다윗은 어떤 후자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다윗에게 들은 아미엘의 대답을 기억하도록 성구에서 찾아 보라.

#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신인식 형제 가족

제 기억에 제가 여덟 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른 시기부터 종교를 접했는데, 성장하면서 교회에 여러 종파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또 그 종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 사이에서 언제부터인가 제 나름대로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를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어디에서도 성실한 신자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생활하면서 여러 사정 상 교회에 꾸준히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아내와 함께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안겨 준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에 교회에 나가는 일은 그만 두었지만 저와 아내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 가족은 지난 3월, 교회로 오는 첫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종교가 아닌 영어 공부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인터넷을 살피다가 우연히 박복주 형제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수 지부와 선교사 숙소 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교회도, 선교사 숙소도 저희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인터넷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당시에 제가 아는 것은 없었지만 이걸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과거의 선지자는 믿으면서 현재에는 선자자란 있을 수 없다고 이 교회를 배척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박복주 형제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형제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만난 존스 장로님과 패디스 장로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에 오른 이야기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직접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딸 현경이와 함께 간 교회. 첫인상이 신선했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려 봤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첫 방문을 하고 나서 제 아내도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 교회에 참석하고 나서 저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혈압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밤낮이 바뀌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루 밤을 꼬박 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저희는 침례를 결심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난감했던 것은 오랫동안 가까운 다른 교회에 다녔던 큰 딸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두고, 게다가 친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마땅해 하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는 일은 어린 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결심한 저희 가족에게 여러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큰 딸과 친구들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커피를 끊으려는 저희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가까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안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아내와 저는 이 교회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두달 반 가량의 시간이 흐르면서 큰 딸 현진이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여 2006년 6월 18일에 저 신인식 형제, 아내 이해숙 자매, 큰 딸 신현진 자매, 막내 신현경 자매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침례의 물가에 함께 모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축하 노래에 눈물이 글썽거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족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가족을 중요한 신앙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믿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저희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무더위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던 올 해 여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과 맞닿은 기상과 소망을 지닌 후기 성도 청년 독신 성인들은 전국 각지의 산과 바다, 계곡과 호수로 청년 대회를 다녀왔다. 지난 1월, 속리산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올 해에는 각 지역 별로 자체적인 대회를 갖겠다고 계획한 우리 후기 성도 청년들이 그 약속을 얼마나 훌륭하게, 그리고 즐겁게 성취했는지 그들의 여름 한자락을 리아호나에 실어 전한다.



위쪽: 대구 스테이크 청년들 래프팅에 도전하다. 왼쪽: 농촌 봉사 활동에 구슬땀을 흘린 광주 청년들. 아래: 바다에서 한창 물놀이 중인 마산 청년들



#### 봉사의 기쁨을 찾아 떠난 광주 청년 독신들

광주 스테이크 독신 회원들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곡성 월정리 야영장에서 청년 대회를 열었다. 대회의 주제를 “봉사”로 정한 광주 청년 독신들은 야영장 지역 농촌에서 논에서 피 뽑기, 메론 씨앗 심기 등을 돕는 활동을 벌였고, 아름다운 섬진강변에서 물놀이와 하이킹, 체육 대회를 즐겼다.(최진 기자)

#### 무더위를 떠나 자연 속으로 간 대구 청년 독신들

대구 독신 회원들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남 산청으로 청년 대회를 다녀 왔다. 지리산 아래에 흐르는 경호강 근처에서 2박 3일을 지낸 대구 청년들은 래프팅과 산행, 그리고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순결의 법 등 여러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한여

## 2006년 청년 대회!!!

름 햇빛만큼 따갑게 내리 쬐는 독신 회원들의 인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는 시간을 보냈다.(조경희 기자)

####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인 마산 청년 독신들

마산 지역 청년 독신들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하나가 되라’는 주제로 모여 2006년 하계 청년 대회를 열었다. 짓먹던 힘까지 쏟아 내야 했던 바닷속에서의 기마전과 수구 경기, 바나나보트 타기, 모두의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해 준 즐거운 바베큐 파티와 세미나는 마산 청년 독신들에게 잊지 못할 한 여름 날의 추억이 되었다. 특별 초청 세미나에 연사로 초대된 고등평의원 김치원 형제는 “훌륭한 부부가 되는 방법은 서로가 자신의 반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독신들의 미래에 대한 훌륭한 말씀을 전했다.(김민정 기자)

#### 부산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청년 독신들은 함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울산광역시 언양 배내골에



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대대가 함께 여러 가지 임무 수행 지령을 수행하며 숨은 범인을 찾아야 했던 “추리 극장” 활동과 생과일 주스 만들기, 봉사 쿠폰 만들기 등 다채로운 베이스 활동이 있었던 산행,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에 땀과 서머함을 씻어낸 물놀이 등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라는 대회 주제처럼 더위가 무색할만큼 열정적인 참여와 활기찬 진행이 어우러졌던 대회였다. 이 대회의 준비 위원 중 한 명인 부산 스테이크 방어진와드 이인주 자매는 “후기 성도 청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번 대회에 걸었던 기대와 성과를 간증으로 전했다.(전건우 기자)



안양 청년들의 단체 사진



활동 중인 부산 청년들

###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합동 하계 대회를 가졌다. “즐거운 가족 여행”이라는 모토를 갖고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대나 지파가 아니라 “힘찬 가족”, “위대한 가족” 등의 이름으로 조를 편성했는데, 대회 기간 내내 각자 가족 그룹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아들, 딸 등 2박 3일 동안 진정한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대회였다. 첫째 날에는 호우주의 보가 내릴 정도로 퍼부은 폭우 때문에 실내에서 지내야했지만 날이 갠 이튿날부터는 설악산의 명물 울산 바위까지 함께 등반하고, 속초 바닷가에서 물놀이와 발야구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어렵게 휴가를 내서 대회에 참가했다는 화양 와드 이효원 형제는 “비록 가상이지만 가족 활동을 통해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신석 기자)

### 여유로운 대회, 안양 청년 독신들

안양 지역 청년 독신들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양수리에서 청년 대회를 보냈다. 호수를 가르며 바나나보트에 몸을 싣는 것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회장단과의 토론 시간, 영화 관람, 남이섬 산책, 체육 활동 등 여유롭고 자유로

운 일정 속에서 스테이크 회원들끼리 서로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대회 기간 중 모든 식사가 스테이크의 기혼자들의 봉사로 제공되어 청년들에 대한 스테이크의 배려와 보살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천 1와드 강미정 자매는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여행이었고, 교회에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며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표현했다.(나선경 기자)

### 정상에 선 청주 스테이크 청년들

청주 스테이크 청년 독신들은 더위가 하늘 끝까지 차오르던 8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앙과 우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산악 등반 청년 대회를 다녀왔다.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을 시작으로 단양에 있는 소백산까지 약 20km를 행군하며 찌는 듯한 더위와 체력의 한계에 맞부딪히는 2박 3일을 보낸 것이다. 개종하여 처음으로 대회에 참석한 최원창 형제는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체험을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승영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라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민병숙 기자)



소백산 정상에 오른 청주 지역 청년들

더욱 자세한 기사와 사진을 웹사이트([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하계 가족 대회, 청소년 대회

유난히 가족 단위 대회가 많았던 올 여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후기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시원한 여름 이야기를 전한다.

## 광주 청소년 대회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로 청소년 대회를 다녀왔다. 이번 청소년 대회는 사실 3박 4일이 아니라 5개월 동안 치렀다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다.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한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이해로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청소년들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해왔던 광주 청소년들은 이번 대회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성장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의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했던 여러 청소년 중 이한나 자매는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고, 작은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며 더욱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최준규 형제는 “제주도 여행은 평생의 행복한 추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표현했다.(최진 기자)

##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울산광역시 언양 배내골에서 청소년 대회를 치렀다. 150여 명이라는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인원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 첫째 날

에는 부산 지역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영어 캠프가 전임 선교사들의 준비와 활발한 참여를 보여준 청소년들의 활약으로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영어 캠프 후에는 야간 비박(비닐로 잠자리를 만들어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과 암벽 등반, 사격, 낚섬, 향건 조임 만들기, 야외 취사 등 스카우트 활동을 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전 의식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부산 지역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 활동과 스카우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하여 이번 대회를 준비했고,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부산 청소년들에게 고무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입을 모았다. 한편 대회 전날까지 실재없이 내린 빗속에서도 대회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부산 회원들의 신앙은 대회 기간 내내 화창한 날



진지하게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부산 청소년





씨로 응답되어 주말까지 큰 비가 오겠다는 일기예보를 무색하게 했다고 한다.(정원몽 형제 기사 제공)

###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들의 대회

지난 7월 29일, 부산 태종대에 모인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들은 2006년 하계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 부름 받은 청소년 역원들과 지방부 산하의 청소년들의 첫 만남이 있어 서로 의로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참여하자는 격려와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부 회장단과 청소년들이 함께 수구 경기 등의 활동을 가졌다.(김정민 기자)

###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시온 가족 캠프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가족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김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시온 가족 캠프를 열었다. 스테이크 회원들이 모두 함께 간 캠프였지만 각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한 자리에서 청소년 대회와 청년 대회, 초등회 대회가 함께 열리고 그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 보는 시간이었다. 문화의 밤 행사에서 각 와드의 장기자랑으로 축제의 서막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이튿날 새벽 다섯 시에 모두 모여 문수산을 등반하고 그 위에서 스테이크 산상 기도회를 했다. 상쾌한 새벽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과, 가족과,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진 회원들은 이후 각 신권회 별로 대회를 가졌다. 청년과 청소년, 초등회 회원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을 배우는 세미나와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고,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 전원이 포크 댄스를 추며 캠프파이어의 낭만을 즐겼다.(정춘영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시온 캠프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

### 수원 스테이크 가족 한마음 축제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가족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맑은 시냇물과 산, 바다에서 2박 3일을 지낸 수원 지역 회원들은 미

니 운동회와 물놀이, 베이스 활동, 세미나 등을 하며 우정과 신앙을 나누었다. 축제 마지막 날에 바다로 나간 회원들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모래로 만든 성전 조각을 만들기도 했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머물렀던 마을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 활동을 하여 축제에 모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다. 260여 명 수원 스테이크 가족 중 스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는 이운분 자매는 “청소년들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변화를 보며 행복했어요.”라며 이번 대회에서 얻은 기쁨을 표현하였다.(최미경 기자)



### 순천 지방부 청소년 대회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양 백운산에서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스무명 남짓의 청소년들은 그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지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체육 대회와 산행, 물놀이, 캠프 피어와 무도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치뤘내어 비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빛을 보여 주었다.(김정애 자매 기사 제공)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

더욱 자세한 기사와 사진을 웹사이트([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 작가의 눈으로 본 미국 속의 몰몬



종교 전문 취재 작가 김나미씨

지난 7월, 출판실로 보내진 메일 한 통에는 소위 “몰몬”에 대한 한 전문 종교 기자의 에세이가 실려 있었다. 종교 기자 김나미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만난 몰몬, 후기 성도에 대한 느낌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병든 미국을 살리는 길, 몰몬이 해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왔다. 그녀가 왜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이 가진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생각했는지,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특히 종교와 사회에 대해 깊은 지식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가 가진 힘은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녀의 글을 통해 살펴보자.

### 병든 미국을 살리는 길, 몰몬이 해답이다 - 루스 앤 해밀톤을 만나서 -

스탠포드 대학 종교학과 내에는 유대교 연구소와 함께 불교 연구소가 있다. 이곳 연구소에 적을 두고 미국 종교계를 둘러 보면서 비몰몬 미국인들이 몰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궁금하여 교수님과 동료연구원들에게 자주 묻곤 했다. “What you think of Mormon?”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LDS보다는 “몰몬”이란 단어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는 인상도 받았다. 물론 작은 학교 연구소라는 곳에 소속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빠지지 않고 한결 같은 대답을 주었다. “무척 건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같은 몰몬이 되어야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몰몬이어야만 도움을 준다. 비몰몬인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라는 등등의 대답을 들었다.

그 전까지 내가 몰몬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오래 전 서울 신촌에 있는 성전을 몇 번 가 본 것, 몰몬경을 한 번 읽어 본 것, 검정 양복에 하얀 셔츠의 깔끔한 옷차림을 한 몰몬 선교사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눠 본 것이 전부였다. 내가 몰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집 주인 레리 때문이었다. 집 주인이 몰몬임을 안 것은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외출도 안하고 지난 십여 년 간 누워 계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몇 달 간 매일 볼 수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정성에서 유교에 깊이 뿌리를 둔 우리의 효가 이 집에서 실제로 살아나고 있음에 감동했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의 여동생의 방문으로 난 또 한 사람의 몰몬을 만났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일하는 여동생이 어머니 병문안을 온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 앤. 그녀를 만난 소감을 말하자면 우선 내가 남들을 통해 들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무척 열려 있

었고 남에 대한 배려가 깊으며 동양적인 정서가 듬뿍 느껴졌다. 몰몬인 이 가족이 모든 몰몬을 대표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보고 느낀 점은 차가운 백인들 가운데 유독 따스한 정이 많은 사람들 이라는 것이었다. 자유분방하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소위 나의 “들은 것에 고정되어 있던 시각”이 바뀌어 갔다. 일요일 교회 예배에도 같이 참석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있었다. 난 그녀와 마주 앉아야 했다. 개인적인 그녀의 신앙심도 부러웠고 또 몰몬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지니 들은 것을 재확인하는 질문이 나왔다. 다음은 루스 앤과 나는 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나미** 난 개인적으로 그간 미국을 보며 미국 땅에 신앙인이 많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지켜 보고 바라본 미국이 무척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미국에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에 병든 환자가 많아 보여요. (중략) 그런데 비 몰몬인들로부터 들은 것에 의하면 몰몬교인 가운데 마약 환자, 알콜중독자, 노숙자는 없다고 하며 또 정직성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 때에도 몰몬교도를 반드시 뽑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 교회에 참석하고 나서 미국 땅에서 몰몬 성도들만은 유독 심신이 건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솔직히 미국 땅에 몰몬이 없다면 어찌 될까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신앙이 많은 길 잃은 양들에게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은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미국의 몰몬교인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관찰자로 내가 미국을 이렇게 보는 시각에 그녀는 약간 놀라움을 표시하더니 비몰몬인들로 부터 듣는 찬사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루스 앤 해밀튼** 언젠가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교회로 타임즈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실한 사람들이고 또 가족을 중시하지요. 이것은 모두 성도로서의 신앙 덕분이지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의 삶에도 고난은 있을테고 나 역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지만 신앙으로 견뎌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앙 이외 그 무엇을 위로로 삼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소중히 다루길 기도합니다.

**김나미** 200년도 채 안된 역사 속에서 전세계 160개국에 1,2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대규모 교회로 발전했는데 전 세계를 거론하지 않고 미국만 보더라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인 몰몬 교회가 세계적인 문제, 예를 들면 헬벳고 굶주리고 목마른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루스 앤 해밀튼** 우리 교회는 초기에 박해도 받았고 희생도 많이 치렀지요. 그러나 우린 결국 해냈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중략) 우리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헬벳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감옥과 환자들을 돌보아 왔어요. 단지 메스컴을 빌려 인류애를 홍보를 하거나 크게 다루지 않을 뿐이지요. 주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단지 먹을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같이 가르쳐 주지요. 물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마시고 또 나아가 우물까지 관리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손길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병과 기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허리케인, 지진, 수재, 토네이도, 전쟁 등등의 세계 긴급 구호 현장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쓰나미 때도 우리는 이슬람 구호단과 함께 현장에 93톤에 가까운 의료 구호품을 보냈어요. 또한 출산사 아

기의 호흡 곤란을 돕는 소생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2004년에는 16개국에 전문가를 파견 현지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휠체어 기증, 비상 구제, 수질 개량으로 정수 공급, 시각 장애 치료도 우리의 주된 복지 사업으로 삼아 힘쓰고 있는 분야예요.

**김나미**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200년 미만의 역사에서 1200 만명의 대 교회를 이룬 그 역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나 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떠올랐다. “너희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면 언뜻 연약한 인상을 주지만 매우 확고하고 강직한 신앙인이자 또 장차 교회에 환원을 꿈꾸는 기부자이다. 옆에서 그녀를 가까이 해 그 강직한 신앙심을 온통 다 배우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었다. 그녀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 전 몰몬 성도를 대표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이었다. 난 학교로 돌아가 나에게 몰몬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었던 분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야 했다. (종교 전문 작가 김나미)

(김나미씨는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불교 철학 전공)을 마쳤으며 현재 종교 전문 취재 작가로 주요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전문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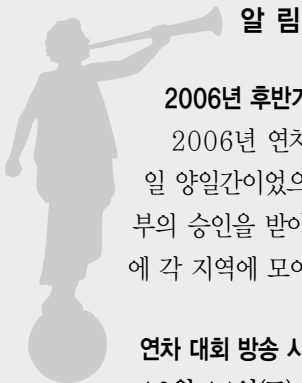
김나미씨와 인터뷰를 한 루스 앤 해밀튼 자매

## 교회 공보

### 언론 매체 관련 교회 공보 추진 사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미국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일부다처주의자 단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몰몬” 혹은 “몰몬 분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언론에서 이를 부연 설명없이 보도하여 그 단체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만드는 보도 자료가 여러 차례 신문과 방송에 실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와 언론사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자료를 발송하고 추후 재차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하

였다. 이 결과로 MBC에서는 2006년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 MBC스페셜 방송 말미에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 명시 기사문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오해가 있도록 보도한 점과 일부 다처주의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무관함을 밝혔다. 한국 공보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잘못 알려진 교회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모범과 관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이원강 기사 제공)



## 알림

### 2006년 하반기 연차 대회 방송 시간

2006년 연차 대회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 알립니다. 원래 한국의 연차 대회 방송 시간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이었으나 이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귀향길에 오른 성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회 본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어 연차 대회 중계 방송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내신 후에 각 지역에 모여 2006년 하반기 연차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차 대회 방송 시간

10월 14일(토)	10월 15일(일)
토요일 오전 모임 12시~2시(오후)	일요일 오전 모임 10시~12시(오전)
토요일 오후 모임 3시~5시(오후)	일요일 오후 모임 1시~3시(오후)
신권 모임 6시~8시(오후)	

#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예술단 '물몬 주니어'
-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청소년 대회
-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재능 발표회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제사 우정 모임
- 수원 스테이크  
초등학교 대회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회장: 김현수(전임: 윤동주)  
이리 와드 감독: 김상규(전임: 정대영)  
전주 와드 감독: 박성률(전임: 진재명)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280기 5명/해외 2명



김종철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대전 선교부



홍광진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대전 선교부



박진주 자매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서울 선교부



손정균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배성진 장로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대전 선교부



신승태 장로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한정훈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대전 선교부